

# 이화동창

**특집1** 이화 캠퍼스 산책 / **특집2** 대바자회 /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02

08

14

# 이화동창

2015년 가을 제140호



##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 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62×72.5cm, 1995)

- |    |                            |                                |
|----|----------------------------|--------------------------------|
| 02 | <b>특집1/ 이화 캠퍼스 산책</b>      | 걸어서 이화 한바퀴, 모교 캠퍼스 어떻게 달라졌을까   |
| 08 | <b>특집2/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b> | 각 과, 대학원, 지회가 참여한 가을의 잔치 마당    |
| 11 | <b>축하합니다</b>               | 최성희 동창 외 12인                   |
| 14 | <b>만나고 싶었습니다</b>           | 최고 기부자 '이화眞회원' 정명숙 동창          |
| 17 | <b>총동창회 소식</b>             | 정기임원회에서 행사 논의                  |
| 19 | <b>선교부 소식</b>              | 상반기 위로회와 파송 선교사 방문             |
| 20 | <b>자랑스런 이화의 얼굴</b>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동창             |
| 24 | <b>모교 소식</b>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외          |
| 27 | <b>나의 스승 나의 제자</b>         | 이정환 전 유아교육과 교수와 제자 김용희, 박희경 동창 |
| 32 | <b>이화의 이곳저곳</b>            | 취업 지원생의 든든한 지원군, 경력개발센터        |
| 37 | <b>모교사용설명서</b>             |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
| 38 | <b>선교지에서 온 편지</b>          | 기독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기도           |
| 40 | <b>대학(원) 소식</b>            |                                |
| 43 | <b>과(학부) 소식</b>            |                                |
| 48 | <b>지회 소식</b>               |                                |
| 56 | <b>동창 근황</b>               | 김수영 동창 외                       |
| 63 | <b>동창이 폴낸 새 책</b>          | 『빼앗긴 사람들』 외 5권                 |
| 64 | <b>신입 동창 명단</b>            |                                |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신방 69)

윤혜숙(신방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5년 가을 140호

발행 2015년 10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엘앤피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특집1 / 이화 캠퍼스 산책

# 걸어서 이화 한 바퀴

- 모교 캠퍼스, 어떻게 달라졌을까



녹음이 우거진 모교 캠퍼스를 오랜만에 찾았다. 교문을 들어서니 이화웰컴센터가 반겨준다. 학창 시절 그 자리에는 이화교가 있었고, 이화교를 건너면 신단수가 있었다. 현재 ECC라 불리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의 거대한 입구가 시작되는 곳이다. 신단수는 2002년 ECC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변화하고 도약하는 모교의 현재가 한눈에 들어오는 ECC를 바라보니 지나온 이화의 흔적과 다가올 미래의 설렘이 동시에 느껴진다. 정동의 작은 한식 기와집에서 시작한 모교의 교사 건축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왔는지 이화역사관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통해 추억해 본다.

### 신촌 캠퍼스 시대가 열리다(1935~1949)

모교가 신촌 캠퍼스로 이사한 해는 1935년이다. 모교의 신촌 캠퍼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의 결실이었다. 신촌에 새 캠퍼스 부지를 결정하고 나서도 구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미국의 독지가 그레 이 부인이 부지 구입자금을 기부하면서 캠퍼스 조성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본관, 대학원관, 중강당, 체육

관 A동, 대학원별관, 영학관, 가사실습소(1950년 소실), 진선미관이 그때 지어졌다.

### 신촌 캠퍼스로 복귀하다(1953~1985)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모교는 신촌으로 복귀하자마자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 캠퍼스 확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1956년경 대부분의 교사를 복구하고 학생식당 및 총장 공관, 과학관, 학생관, 대강당, 헬렌관, 신기숙사를 잇달아 완공하였다.

### 이화의 2세기를 열다(1986~1999)

모교 캠퍼스는 1986년 이화 10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였다. 음악관과 종합과학관, 경영관을 새로 지었으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박물관을 준공하였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인문관을 완공하고, 자연사 박물관과 세계 최초 여성공과대학 건물인 아산공학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학생문화관을 다시 짓고 이화-SK텔레콤관과 새 기숙사인 한우리집을 완공하였다.

### 이화의 변화와 도약은 계속 된다(2000~현재)

21세기를 맞은 모교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2000년 국제 교육관 완공을 시작으로 이화-포스코관, 조형예술관 C동, 종합과학관 C동을 완공했고 2005년 이화-신세계관, 2006년 교육관 B동을 완공했다. 또한 이화 120주년을 맞아 정동에 있었던 최초 이화학당 한옥교사 를 복원한 이화역사관을 완공하고 같은 해 이화-삼성국제기숙사를 완공한다. 2008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인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를 완공하여 교육과 연구, 생활과 학습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첨단 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 사진 제공·이화역사관 및 기획처 홍보팀

## 교정이 그리운 날에는 특별한 캠퍼스 투어를!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는 동창이나 이화가족, 혹은 일반인,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학생 가이드의 안내하에 캠퍼스를 투어하는 웰컴센터의 투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투어는 캠퍼스의 이모저 모를 살펴보는 웰컴투어와 테마가 있는 특별한 캠퍼스 투어가 시즌 별로 진행된다. 웰컴투어는 평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테마투어의 경우 이화가 창립된 5월에는 이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투어, 캠퍼스가 아름다운 11월에는 등록문화재인 본관부터 세계 대학 캠퍼스의 지형도를 바꾼 ECC까지 특별한 이화의 건축물을 살펴보는 건축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 투어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데, 방문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 예약 방법은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하단의 이화웰컴센터 배너를 눌러 웰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홈페이지 메뉴 [게시판 - 투어예약]에서 '방문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날짜 선택 및 인적 사항 기입 후 이메일을 송부한다(방문신청서 발송 이메일 주소: welcome@ewha.ac.kr). 전화 예약은 기획처 홍보팀(02-3277-2049)으로 하면 된다. 투어 안내는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교포를 위해 영어, 중국어로도 제공된다. 요일마다 안내 언어가 다르므로, 예약 시 날짜를 확인하도록 한다.

### 1회 최대 50명(선착순 마감)

\* 역사투어는 5월, 건축투어는 11월에만 진행

국문 투어 : 월~금요일 오후 2시

영문 투어 : 목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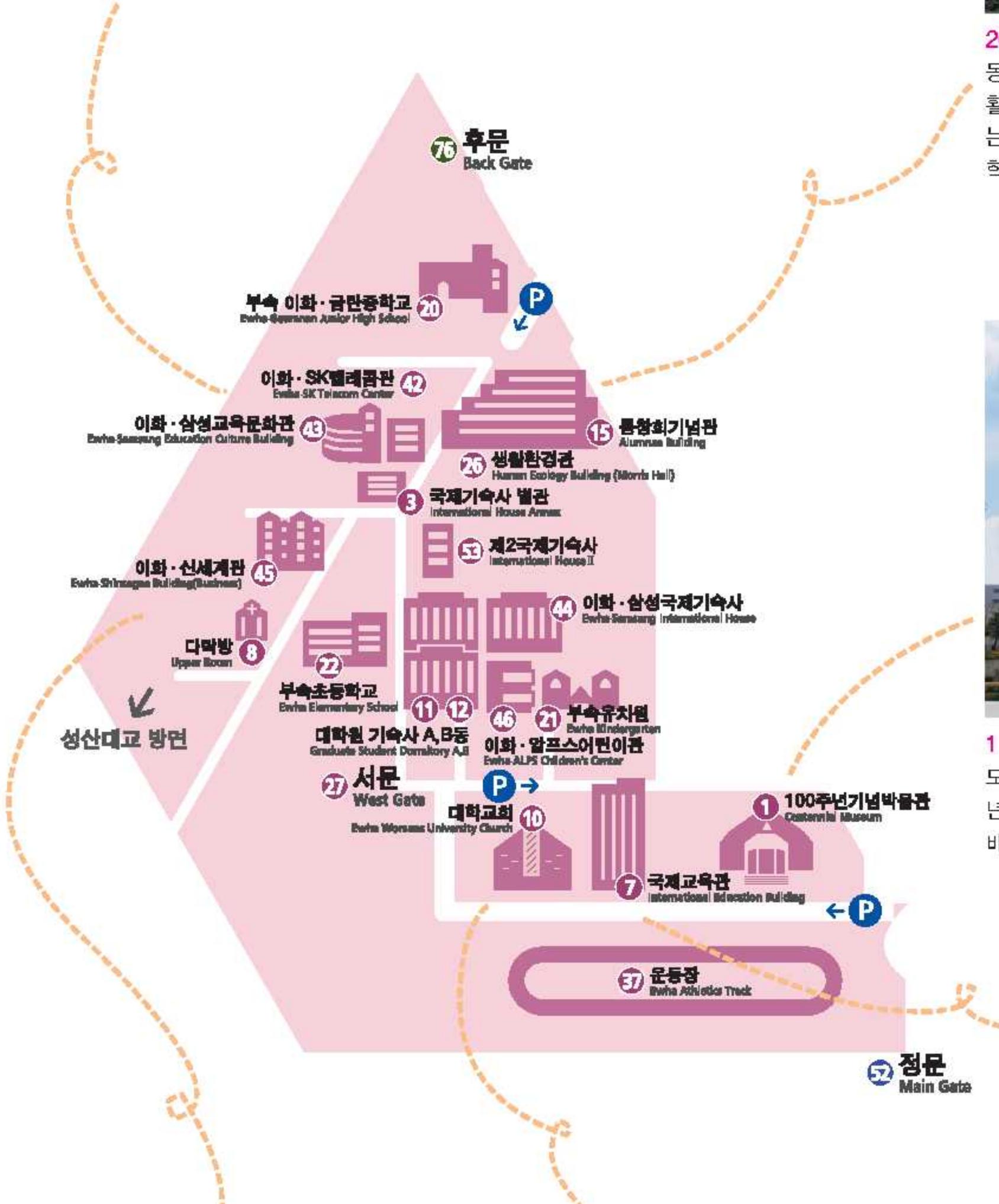
중문 투어 : 금요일 오후 2시



**43 이화-삼성교육문화관**  
후문 이대부속중학교 옆 부지에 1997년 완공된 이화-삼성교육문화관은 강의실과 컴퓨터실, 랩실, 녹음스튜디오를 갖춘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의 장으로, 1~4층은 언어교육원, 5,7층은 평생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8층을 사용하고 있다.



**26 생활환경관**  
동창회기념관과 학생식당이 있었던 가정대학관은 생활환경관으로 개칭되었다. 이 건물에 있던 총동창회는 이후 이화-삼성교육문화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학생식당은 현재도 이 건물에 남아 있다.



**45 이화-신세계관**  
경영대학 전용 건물인 이화-신세계관은 2005년 완성되었다.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한 강의실과 강당, 원형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원연구실, 행정실, 경영학도서관으로 구성된 복합 인텔리전스 건물이다. 미래의 여성경영인의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첨단교육환경의 장으로 완성되었다.



**10 대학교회**  
증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대학교회는 점점 교우들이 늘어나자 독자적인 교회 건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회 신축을 위한 현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이 북한에서 순교한 어머니 김숙녀 여사를 기념하는 교회를 모교 내에 건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00년 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



**1 100주년 기념박물관**  
모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완공한 100주년 기념박물관. 배꽃 모양 지붕은 모교의 교표인 5개의 배꽃을 상징한다.



**7 국제교육관**  
박물관 뒤편 테니스장과 주차장 정비구역이었던 곳에 들어선 국제교육관은 2000년 완공되었다. 현재 국제대학원과 통번역대학원 및 색채디자인 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2010년 스크랜트대가 이곳으로 이전했다.



### 17 법학관

법대는 모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6년 단독 건물인 법학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 건물은 2006년에 증축되어 모의법정, 대형 강의실 등의 시설을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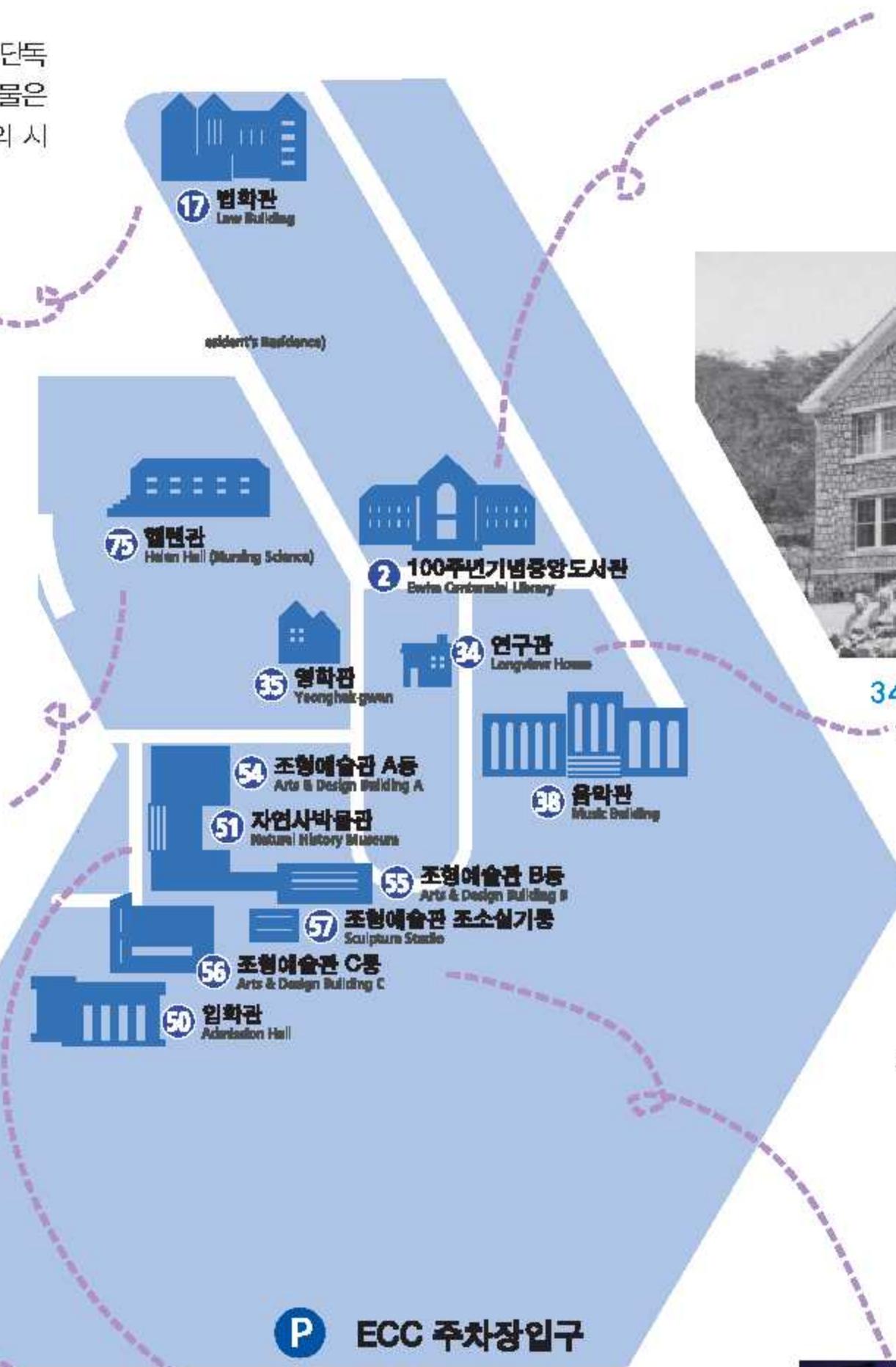
### 2 100주년 기념 중앙 도서관

모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완공된 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단행본, 연속 간행물, 시청각 자료를 비롯하여 학술 데 이터베이스, 전자저널, e-book, 동영상 강좌 등의 풍부한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다. 2015년 도서관 2층 훌을 리모델링하였다.



### 75 헬렌관

김활란 선생 봉직 40주년 기념 건물로 지어졌으며, 건물명은 김활란 선생의 영문 이름인 '헬렌'을 따서 붙여졌다. 1957년 완공되었으며, 이화 10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이 신축될 때까지 이화의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헬렌관은 간호대학 사용하고 있다.



### 34 연구관

1938년 선교사 사택으로 완공되었으며, 건축 당시 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이 보일 정도로 부가 좋다는 뜻으로 롱 뷰(Long View)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건물은 현재 한국여성 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앞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앤리스 아펜젤러(제6대 교장) 선생이다.



### 47 이화교와 웰컴센터

44년 동안 이화의 상징 중 하나였던 이화교는 2002년 복개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교 정문 현판석 해체와 함께 이화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화교 자리에 현재의 정문이 들어선 이후, 2013년 정문 오른편에 국내 대학 최초로 글로벌 종합방문자 센터가 문을 열었다.



### 51 자연사박물관

조형예술대학 오른편에 있는 하얀 석조 건물로 1996년 완공되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국내외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채집, 보존, 연구를 위해 설립된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은 1996년 새로운 건물을 갖게 되면서 첨단의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추었고 현재 식물, 동물, 광물, 암석, 화석 총 5000여 종, 5만 7000여 점의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 54~55 조형예술관 A, B동

조형예술관 A동은 1960년 준공되어 초기에는 미술대학과 박물관이 함께 사용했다. 네 차례에 걸쳐 증축된 건물로, 1986년 증축 당시 오른편에는 박물관, 왼편에는 미술관이 있었다. 건물 입구 좌우에는 71년도 조소과 졸업생들의 합동작품 <진선미>가 전시되어 있다. 조형예술관 B동은 도예 전공생들의 실습장으로 1959년 작은 규모로 지어졌으나 이후 증축을 거쳐 1978년 말 대폭 확장, 신축하여 조형예술관 A동과 연결되었다. 1984년 다시 증축하여 청자, 백자를 구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 71 학생문화관

각 대학의 동아리 방들과 학생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는 학생문화관. 예전 건물은 1996년 헐리고 1998년 같은 자리에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



### 32 약학관 A, B동

함석지붕 석조 건물로 1955년 완공된 약학관은 모교 캠퍼스의 전형적인 건축 스타일로, 이화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아펜젤러 교장의 업적을 기념하여 아펜젤러홀로 명명되었다. 이후 1994년 신축된 B동은 A동과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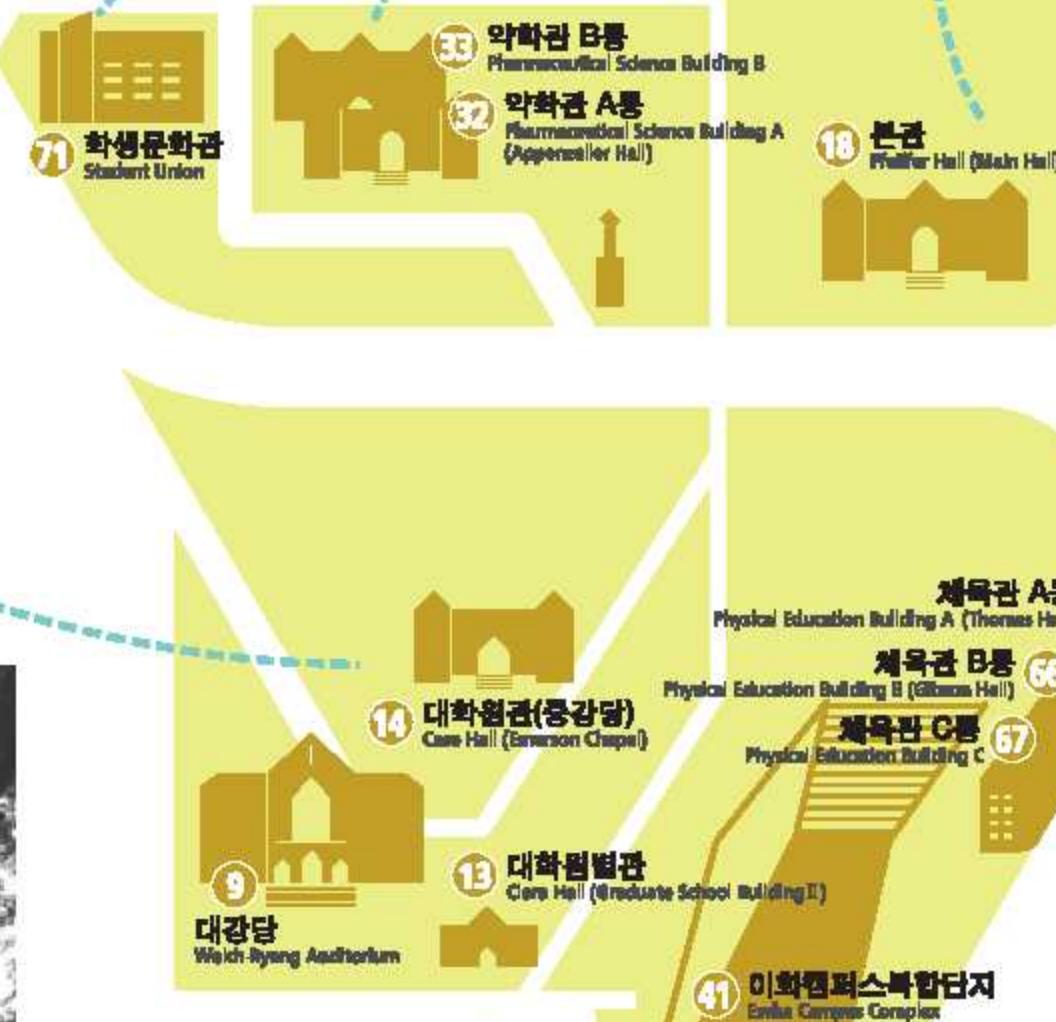
### 18 본관

뛰어난 건축미와 한국 최초 여성교육기관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등록문화재 14호로 등재된 본관은 1935년 완공되었고 6·25 이전까지 전교생이 수업을 받던 공간이다. 현재는 주로 대학 행정본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애다 기도실이 이곳에 있다.



### 14 대학원관과 중강당

(건축 당시 명칭은 음악관과 대강당) 대학원관 우측에 중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193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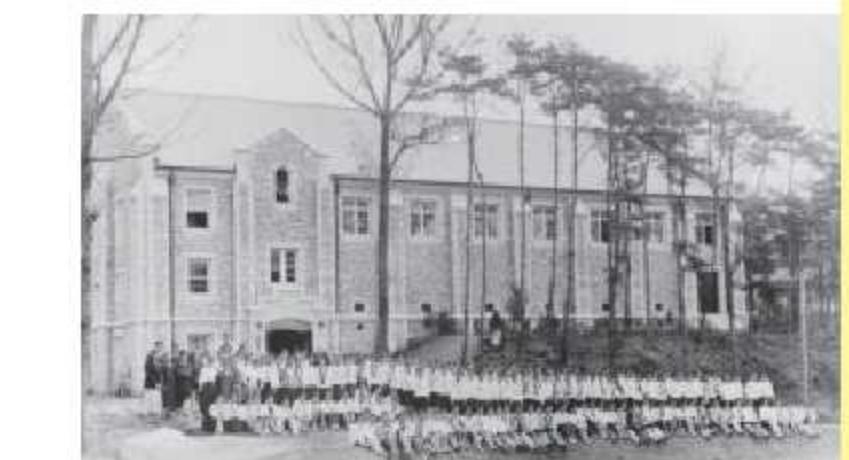
### 9 대강당

1956년 모교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대강당은 당시 모교 재학생 4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등양 최대 규모였다. 교내 예배와 의식의 장소로 쓰였고, 마땅한 예술 공연장이 없던 1960년대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이화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2000년 한 차례 외관 공사와 내부 수리를 마치고 현재 2912석의 객석과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 13 대학원별관(건축 당시 명칭은 보육관)

1936년에 지은 단아한 3층 석조 건물은 보육학과가 쓰던 곳으로 교육관의 전신이다. 우리나라 사범교육의 요람이며 모교 유아교육학과와 사범대학이 바로 이곳에서 출범했다. 사범대는 교육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건물을 사용했고, 현재는 여성지도력개발센터가 사용 중이다.



### 65 체육관

1935년 지은 초창기 건물 중의 하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내부의 실내체육관은 당시 흔치 않았던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화학당 초기부터 체육교육에 힘써온 이화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건축물이다.



### 41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운동장이 있던 부지에 들어선 국내 최대, 최첨단 지하 캠퍼스이다.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폐로가 설계, 지하 6층 규모로 2008년 완공했으며 '캠퍼스 밸리'를 모티브로 지어졌다. 계곡처럼 된 중앙광장을 통해 지하 4층으로 들어가면 서점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극장, 공연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학생들의 공간으로 강의실과 자유열람실, 교수연구실, 학교사무실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지하 5~6층은 주차장이다. 이화캠퍼스복합단지는 2008년 서울시 건축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건축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 5~6 교육관 A, B동

1965년까지 사범대학은 현 대학원 별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늘어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자 교육관 A동을 착공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녹음실, 기악연습실, 실험실, 암실, TV 및 라디오 스튜디오와 영사실, 언어연습실을 갖춘 이 건물은 전 사범대학장 김애마 선생의 봉직 40주년을 기념하여 김애마관이라고 명명되었다. 교육관 B동은 2006년 신축되어 교수연구실과 멀티미디어 대형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로 이용되고 있다. 외벽이 'ㄷ' 자 모양의 알루미늄 바로 둘러싸여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 70 학관

1964년 준공된 학관은 후문 옆에 있는 그자형의 콘크리트 건물로 모교에서는 처음 지어진 매머드 건물이다. 처음에 '한미학관'으로 불려온 후에 '학관'이라 약칭하였고 'C'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미학관'이라 불린 것은 처음 학관을 세울 때 지금 사정이 순조롭지 못해 미국에서 모금된 원조금과 일부 학교 예산으로 착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층과 3층이 연결되는 미스터리한 구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인 '이상'이 설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1970년대 1, 2층이던 건물을 80년대 증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현재 학관은 인문대가 사용하고 있다.



### 58~60 종합과학관 A, B, C동

한국 여성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지어진 종합과학관은 A동이 1982년, B동이 1984년, C동이 2004년에 완공되었다. 자연과학대 및 사범대학 자연계열 학과, 생명과학전공과 약학과 일부와 의과대학, 기초과학연구소가 함께 사용하는 이 건물에는 교수연구실, 강의실, 공동실험실, 컴퓨터실 등 최첨단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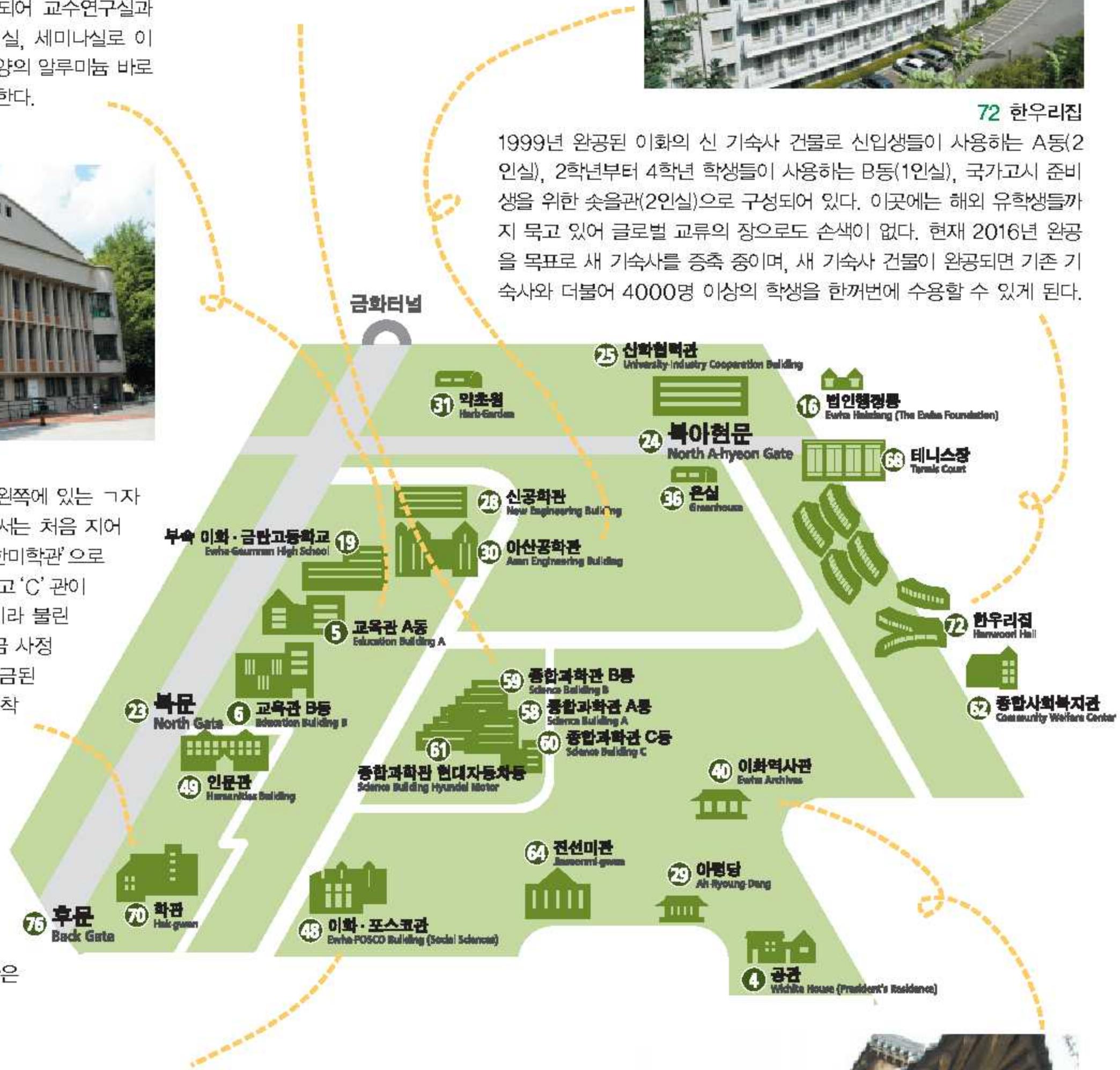
### 30 아산공학관

세계 최초 여성공과대학 건물인 공학관.



### 72 한우리집

1999년 완공된 이화의 신 기숙사 건물로 신입생들이 사용하는 A동(2인실), 2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B동(1인실), 국가고시 준비생을 위한 솟을관(2인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해외 유학생까지 묵고 있어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현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새 기숙사를 증축 중이며, 새 기숙사 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기숙사와 더불어 4000명 이상의 학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48 이화-포스코관

진선미관 뒤에 있던 구 기숙사(빌링슬리홀)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선 이화-포스코관은 사회대와 사회대 교수연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 빌링슬리홀(현 이화-포스코관 자리)

건물 완공에 조력한 미국 여선교회 한국 담당 간사인 마가렛 빌링슬리 여사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건물로,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 40 이화역사관

이화 창립 120주년인 2006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원래 이 자리는 작은 동산이었는데 이곳에 최초의 이화 학당 교사인 정동의 한옥교사를 복원했다. 이화의 창립 정신과 역사를 널리 알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 이번 바자는 알찬 상품 구성으로 동창 및 재학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 직접 만든 생활도자기를 선보인 도예과

### 특집2/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

## 61개 과, 4개 대학원, 10개 지회 참여한 가을의 잔치 마당 손수 만든 작품, 친환경 제품 등 알찬 구성 돋보여

총동창회 산하 61개 학과와 4개 대학원, 10개 국내지회가 참여한 바자회가 9월 17일(목) 모교 학생문화관 및 생활환경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바자의 수익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창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날은 햇빛도 따사롭고 가을바람도 기분 좋게 불어서 행사에 참여한 동창들은 오랜만에 만난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까지 이어진 다소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끝까지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 친환경 제품에 높은 관심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각 학과와 대학원, 국내 지회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상품이 저마다 매대에 진열되었다. 생활환경관 앞에 마련된 총동창회 본부석에서는 저염 맥명란, 오미자 원액 및 동창회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을 팔았고, 그 옆으로 자리한 부스에서는 각 과에서 저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품으로 고객을 불러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총동창회장, 최경희 총장, 장명수 이사장



1.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신뢰하는 철학과 장터 2. 수익금 전액을 캄보디아 아동과 서대문구 어려운 이웃돕기에 기부한 사회복지학과 “직접 만든 것이니 믿고 사세요” 3. 이번 바자는 친환경 및 수제품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총동창회 바자는 여느 바자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친환경 제품, 수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었다. ‘동창이 직접 귀농해 서 만든 제초제 냄새도 맡지 않은 친환경 참기름과 참깨’를 내놓은 철학과, 친환경 참기름을 내놓은 불어불 문학과, 유기농 고사리를 준비한 기독교학과, 직접 만든 맛간장을 내놓은 문현정보학과, 현미누룽지를 내놓은 성악과, 천일염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내놓은 식품영양학과의 제품은 질과 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며 고객의 호응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산복지관에서 직접 만든 특산물 포도잼과 천연비누를 준비한 사회복지학과는 수익금 전액을 캄보디아 아동과 서대문구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 동창이 만든 수제품 여느 해보다 많이 선보여

둘째, 과 전공을 살리거나 동창의 특기를 한껏 반영한 상품들로 매대를 꾸민 점이 돋보였다. 조형예술대 도예과 및 서양화과에서는 매년 직접 만든 도자기와 그림, 미술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창들과 함께 물건을 파니 더 즐거워요.” 왼쪽부터 화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동창들

역시 질 좋은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 눈길을 끌었으며, 생명과학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 액세서리’를 내놓았고, 체육과는 동창이 만든 젓갈과 김을, 수학교육과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국제사무과에서는 수제 도마를, 특수교육과는 자폐성장애인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약대의 생활용품과 영양제, 가정관리과와 의류직물과의 핸드백과 의류는 과 전공을 살린 제품으로 신뢰도를 높였으며, 대학원에서는 아이케어 코너를 마련해 인공눈물과 영양제를 무료 진료와 함께 나누어 주고 소정의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부스를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 SNS 통한 예약 판매 등 판매방식의 새로운 변화 시도

판매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이번 바자회는 각 과와 대학원, 지회 주관으로 직접 품목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방식이었으며 총동창회에 소정의 분담금만 내고 나머지 수익금은 각 동창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 중 섬유예술과는 2주일 전부터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예약 주문을 받아 바자회 전 이미 매출 500만 원을 달성했고 당일까지 총 매출 780만 원에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각종 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즈음의 사례를 볼 때 판매방식의 새로운 변화로 다른 과에서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행사장에는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 고문이 방문해 행사에 참여한 동창들을 격려하였으며, 최경희 총장과 장명수 이사장도 이른 아침부터 대바자회 현장을 방문,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부스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최경희 총장은 “상품 구성을 아주 잘했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좋은 데다 동창회장님을 중심으로 동창들이 열정적으로 단결한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각 과 동창들은 오후 5시에 행사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뒤풀이를 통해 선후배와의 즐거운 만남을 이어갔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축하합니다



과(학부) 순서로 게재



최성희(영문 88) 동창

## 루비 콘 상 수상

모교 영어영문학전공 교수이자 영미학융합연구소장인 최성희 동창이 4월 11일(토) 한국 현대영미드라마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인 '루비 콘 상(Ruby Cohn Award)'을 수상했다. 현대드라마와 공연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최 동창은 브레히트 연극이론으로 석사를, 브로드웨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연극 평론가협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채은주(독문 85) 동창

## 콘페리 한국법인 대표이사 임명

채은주 동창이 글로벌 고위 임원채용 및 리더십 컨설팅 업체 콘페리(Kornferry)의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모교에서 독어독문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과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MBA를 받은 채 동창은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및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과 한국 기업의 고위 임원직 채용 컨설팅 비즈니스를 맡아왔다. 또한 콘페리 아시아 지역 소비자 분야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1998년 콘페리 한국법인이 설립된 이래 2004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시니어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승진한 바 있다.



여명숙(철학 89) 동창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여명숙 동창이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제2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 뒤 학계에서 가상현실·인지과학 전문가로 활약한 여 동창은 모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 언어정보연구소(CSLI)에서 박사후과정(Post Doc)을 거쳐 서울대 융합기술원과 KAIST 전산학과 등에서 인문기술 융합 분야 강의와 연구활동을 해왔다. 또 2011년부터 최근까지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계난경(문정 88) 동창

## 국무총리상 수상

7월 9일(목)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에서 계난경(동학식품 대표) 동창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계 동창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여성기업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김명희(사회 74) 동창

### 한국컴퓨터그래픽스 대상 수상

모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명희 동창이 한국컴퓨터그래픽스 대상을 수상했다. 그래픽스 대상은 최근 4년간 수상자가 없을 만큼 선정 조건이 까다로운 상이다. 김 동창은 그래픽스/영상처리 기술을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 접목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역대 4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김 동창이 이끄는 모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연구팀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정밀 진료를 위한 환자유래 혜테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의료 이미지 인포매틱스 기술 개발' 과제로 2020년까지 매년 10억씩 총 50억 원의 국고사업비를 연구비로 지원받게 된다.



조상미(사복 94) 동창

### 우수논문상 수상

모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인 조상미 동창이 5월 29일(금) 열린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조 동창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해왔으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유세경(신방 82) 동창

### 국무총리 표창 수상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교수인 유세경 동창이 4월 21일(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유 동창은 'UHD 방송정책과 미래지향적 방송 평가 제도'를 연구하여 방송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방실(섬예 95) 동창

### 르노삼성 마케팅 총괄이사 발탁

방실 동창이 르노삼성차의 마케팅 총괄 이사로 취임했다. 방실 이사는 2005년 폭스바겐 코리아 설립 당시 합류한 원년 멤버로, 10년 가까이 홍보와 마케팅 업무에서 수완을 발휘하며 국내 시장에서 폭스바겐 제품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유경하(의학 84) 동창

### **이대목동병원장 선임**

유경하 동창이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 선임되었다. 유 동창은 1996년부터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소아종양·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 동창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조영주(의학 84) 동창

### **서울서남병원장에 임명**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서울 서남병원 제3대 병원장에 모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주 동창이 임명됐다. 조 동창은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서울아산병원 생명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아이오와대학, 미국 뉴욕 업스테이트 병원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이대목동병원 내과과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김은영(약학 96) 동창

### **한국엘러간 신임 지사장 취임**

김은영 동창이 한국엘러간 신임 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모교 약대 및 연세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으며,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싱가포르 지사를 비롯한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에서 근무하며 마케팅, 기업전략, 전략적 제휴, 사업부 총괄 경험을 통해 뛰어난 경영 역량을 보여왔다. 한국 엘러간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직전에는 한국 BMS 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노바티스 싱가포르 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천혜정(가관 89) 동창

### **최우수논문상 수상**

모교 소비자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천혜정 동창이 6월 5일(금) 열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치적 소비행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천 동창은 현대사회의 소비 현상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김정숙(대학원 84) 동창

###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당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김정숙 동창이 5월 31일(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총회에서 세계 회장에 당선되었다. ICW는 127년 역사의 대표적인 국제 여성 비정부기구이다. 김 동창은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무장관 실 차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21세기여성정치연합을 창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최고 기부자 '이화 眞회원' 정명숙 동창

## "노벨상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월) 정명숙(화학 57) 동창과 (주)YBM 민영빈 회장 내외가 모교에 이화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정명숙장학금을 비롯해 이화캠퍼스마스터 플랜기금, 이화NNS발전기금 등을 후원한 정 동창은 기부액 10억 원 이상인 최고 기부자 등급 '이화 眞회원'으로 장명수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이화는 모교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본향 같은 곳이에요. 그동안 이화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송구하군요. 저의 후원이 이화가 세계적인 여자대학으로 커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 동창과 모교와의 60년 넘는 인연은 부산 피난처에서 보낸 고등학교 때부터였다.

"그냥 화학이 좋았고 막연하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큐리 부인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대학 모의고사에서 2등을 하자 주위에서는 서울대에 입학하라거나, 미래가 보장된 약대나 의대를 가라고 했지만 정 동창은 소신 있게 모교 화학과를 선택했다.

경기여고 시절 수학을 지도해 주셨던 연세대 장기원 교수님께서 당연히 연세대로 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여자는 이화여대에 가야 해. 여자 대학에 가야 끝까지 키워주지, 남녀공학에 진학하면 남자 졸업생부터 키운다"고 하셨을 때는 조금 의외다 싶었다. 화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인기는 없었지만, 정 동창은 여성의 키워주는 이화여대라서 졸업생이 많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모교 화학과에 지원했는데 뜻밖에 전체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수학과 조병국 교수님께서 "네가 수학 100점 만점이었다지. 이화여대 설립 이후에 입학시험에서 수학 100점이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며 크게 칭찬해 주셨다.

휴전 이후 그렇게 바라던 신촌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난생처음 짧지만 기숙사 생활도 했다. 강의 시간에 몰래 영화를 보러 빠져나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몰려가서 연고전 응원에 열광했던 추억은 여든을 넘긴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정 동창.

화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큐리 부인이 되겠다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의욕에 발명품도 만들고 특허를 받아 동생들에게 화학 공장 하나씩 지어주겠다는 엉뚱한 꿈을 꾸기도 했다. 그전부터 정 동창의 욕심을 알고 있던 장기원 교수님은 “계속 공부하려면 미국 유학을 가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이미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어서 과학자로 키우던 중이라 그 말씀에 솔깃했다. 더구나 말만 그러신 게 아니라 공보부와 미국문화원을 통해 입학 허가와 함께 장학금을 얻어 내기까지 하셨다. 결혼 후에 유학 가도 늦지 않다는 아버지의 반대로 유학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한번 맷은 사제의 인연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격려해 주셨던 교수님을 정 동창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동창은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던 중 1957년부터 조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화학과는 학생관 1층을 쓰고 있었는데, 실험에 필요한 약품을 찾으려면 환풍기 시설도 없는 지하로 내려가 30분 이상 눈을 부릅뜨고 뒤져야 했다. 공기가 나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강사 자리가 나올 기미도 없고 결혼과 임신, 육아를 병행하는 조교 생활은 힘들었다. 그러나 정 동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외우며 참고 기다렸다.

1963년 사범대 안에 과학교육과가 생기자 사범대 창시자이며 사대 학장이셨던 김애마 선생님이 화학

#### 정명숙(전 모교 과학교육과 교수)

- 1934년생. 경기여고, 이화여대 화학과와 대학원 졸업
- 1957년 이화여대 조교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30년간 모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 대한화학회 화학교육분과위원, 이화여대 문리대 동창회장, 이화여대 총동창회 후원이사 등 역임.

전공 전임강사로 불러주셨다. 조교 생활 6년 만의 일이었다.

교수 2년 차였을 때였다. 실험실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눈에 부상을 입는 일이 생겼다. 눈앞이 깜깜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에게는 내내 마음의 짐을 진 기분이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 동창은 좋은 여건 속에서 제자들이 공부하고 실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웠다. 얼마 뒤 종합과학관을 세운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건립 모금 운동에 앞장선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 김세영, 김옥자, 맥동기 선생님 등 8명의 모금위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낼 때는 즐겁기까지 했다. 이상범과 변관식의 풍경화 두 점을 그림 접시로 만들어 10만 원에 팔아보자는 정 동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당시로는 꽤 많은 금액이 모였을 때는 기뻤다. 그 무렵 시사영어사를 인수해서 여유가 별로 없던 남편도 적지 않은 기부금을 보태 너무나 고마웠다. 그 일을 치르면서 정 동창은 조금의 여유라도 생기면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1987년, 시어머니께 살림을 맡기고, 엄마 노릇도 미뤄가면서 지켰던 강단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다. 여섯 살 무렵 다친 옆구리를 별스럽지 않게 여긴 게 화근이었다. 가끔 이상한 조짐이 있긴 했지만 건강에 자신하던 정 동창은 매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넷째 딸을 낳은 후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꼼짝도 못하

고 끝없이 식은땀을 흘렸다. 말도 나오지 않고 어깨가 시려 잠을 잘 수 없었지만 미련하게 전기 패드를 착용하고 자면서 그렇게 병을 키우다 결국 화학 교수의 필수인 후각 기능까지 잃었다.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하자는 생각에 요가를 시작한 몇 달 후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폐에 염증이 있고 갈비뼈까지 금이 간 후였다. 몸 아픈 건 견디겠는데 기침 때문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어 30년의 교직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정 동창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새로 생긴 시간은 그동안 못했던 어머니 노릇과 며느리, 아내 노릇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을 달랬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정 동창은 입학철이 되면 화학과에서 수석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로 신문을 살폈다. 그녀가 입시생이었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수한 학생들은 의대나 약대로 몰린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쉬 마음을 접지 못했다.

“먹고살 만해지면 선진국처럼 화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학문에 인생을 거는 학생들이 당연히 많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멀쩡히 대학에 다니다가도 의대에 가겠다며 재수하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아래로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씁쓸해 하던 2003년 8월, 신문을 보던 정 동창의 눈이 번쩍 띠었다. 모교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서울과학고 3학년인 이윤진 양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는 기사였다. 부모님이 의대 진학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화학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이 양의 당찬 포부를 들었을 때 고맙고 기특해서 울컥했다. 정 동창 이후

50년 만의 일이었고 칠순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잊고 있던 노벨상에의 꿈이 다시 떠올랐고, 후배가 자신이 못 이룬 노벨상의 꿈을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소망을 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흔쾌히 정 동창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정명숙장학금’이 생겼다. ‘우수 화학도 양성’에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고, 첫 수혜자인 이 양도 만났다. 그 뒤 이 양이 ‘독일 화학회’ 지에 체내단백질 산소 전달 매커니즘을 처음 규명한 논문을 냈다는 소식에 정 동창은 자기 일처럼 기뻤다고 했다.

2009년 5월, 정 동창은 파주 부지에 계획 중인 교육·연구단지 조성기금으로 2억 원을 대외협력처에 전달했다. 피난 시절 부산 보수동 천막교실과 실험실 사건이 떠올라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싶었다. 2년 후 파주 캠퍼스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신촌 캠퍼스의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자 정 동창은 다시 기부를 결심했다. 이어서 2012년 5월, 이화NNS발전기금 1억 원을 내놓아 전체 기부금은 15억 원이 되었다.

1963년부터 1987년까지 모교의 과학교육과 교수로, 세 딸의 동창인 어머니로, 남편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살아온 지난 여든 해의 인생, 어느 한 구비 쉽고 편하지 않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정 동창. 온유하고 겸손한 어머니로, 노벨상의 꿈에 도전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선배로, 지금까지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늘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녀의 바람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 총동창회 소식

## 정기임원회에서 ‘대바자회’ 일정 및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

7월 9일(목) 11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7월 정기임원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선언과 찬송가, 감사기도, 전 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에 이어, 전임 총동창회장이자 신임 고문으로 추대된 조종남(의학 75) 고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김영주(교육 7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모교 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조종남 고문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총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는 총동창회 주최로 지난 5월에 열린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예년과는 다르게 참여자 모두를 시상한 점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참가 어린이들이 매우 즐거워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50주년 졸업 동창이 모이는 행사장이 협소하고 안내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장소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입구에 피켓 등을 놓아 50주년 동창들이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합창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공지를 통해 참가자격과 부상 등을 알리자고 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총동창회 주최 하반기 행사인 ‘대바자회’ 일정 및 11월에 있을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9월 10일(목) 2시 30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기임원회에서는 9월 17일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대바자회 자리 추첨과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에서 출품한 바자회 물품 소개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의 질 좋은 물건을 섭외한 것은 물론, 동창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부스 주변 인테리어 배치까지 고려한 의견을 제출하여 대바자회 준비에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는 11월 30일(월)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로 추천된 5명 동창에 대한 약력 보고와 함께 당일 초청 공연팀에 대한 소개, 기념품 협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11월 30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름다

운 이화인’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내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이화인의 봄’에서 시상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모두 5명으로, 한국-베트남 시민연대 대표 황점순(영문 73), 안양교도소 교정 위원 및 가정문화원 원장 김영숙(약학 67), 북미주 최초 한인방송을 개설한 서정자(법학 63), 북한 라선 지대에 파송된 선교사이자 라선간호학교 명예교장으로 있는 송정옥(교공 69), 산부인과 전문의로 선교사로 파송돼 25년간 칠레, 폐루 빈민가에서 의료선교 및 선한사마리아인진료센터 원장으로 일하는 오주엽(의학 81) 동창이다. 선정위원들은 10월 중 총동창회 소회의실에 모여 각 대학과 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5인의 행적 사항을 1차 심사하고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 당연직 위원

총동창회 고문 |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장 |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 문화부장 | 한숙영(제약 79)  
모교 대외협력처장 | 오진경(서양 81)  
모교 기획처부처장(홍보) | 유성진

##### 선출 위원

총동창회 부회장 | 정준순(약학 72)  
총동창회 총무 | 송은미(유교 85)  
총동창회 홍보부장 | 이영희(사학 88)  
공과대학 회장 | 김미영(컴퓨터 85)

## 총동창회 대바자회 개최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동창 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활성화,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를 9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교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61개 과(학부)와 4개 대학원, 10개 국내 지회에서 참여 했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과 신선한 먹을거리, 질 좋은 잡화류를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바자회에서는 즉석식품

코너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 국내 유명 메이커의 의류제품, 아동용품, 구두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구성의 질 좋은 상품이 진열돼 교정을 오가는 동창 및 재학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특히 동창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동창 기증품 알뜰 판매 코너는 대바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로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동창들의 참여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 선교부 소식

### 상반기 위로회와 파송 선교사 방문

선교부는 지난 7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가평 이화수목원과 가락재 영성원에서 그동안 선교부 간사로 섬기던 류보영(식영 96) 선교사의 영국으로의 첫 파송과 안식년으로 함께 기도하던 한현주(피아노 90) 선교사의 선교지로의 복귀를 계기로 위로와 쉼의 시간을 가졌다. 가평의 이화수목원에서는 김활란, 김옥길 등 이화를 여기까지 오게 하도록 주님께 충성하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이화의 첫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묵상 기도를 하였다. 아름다운 산자락에 세워진 이곳처럼 이화가 주님의 산에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숙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편, 7, 8월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아시아, 중동, 태평양, 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복음의 통로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김미나(영교 85), 몽골의

이지영(교육 90), 미얀마의 한혜경(특교 85), 파푸아뉴기니의 정보영(사복 85) 선교사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캐롤(의학 93), 염승혜(서양 96), 유덕희(간호 96), 김리디아(사생 89) 선교사가, 북미주에서는 최혜영(생미 86) 선교사가, 영국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류보영(식영 96), 한현주(피아노 90) 선교사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저개발국에서 의료사역하는 유병국(간호 75) 선교사가 방문하였다.



상반기 위로회에 참석한 선교부 동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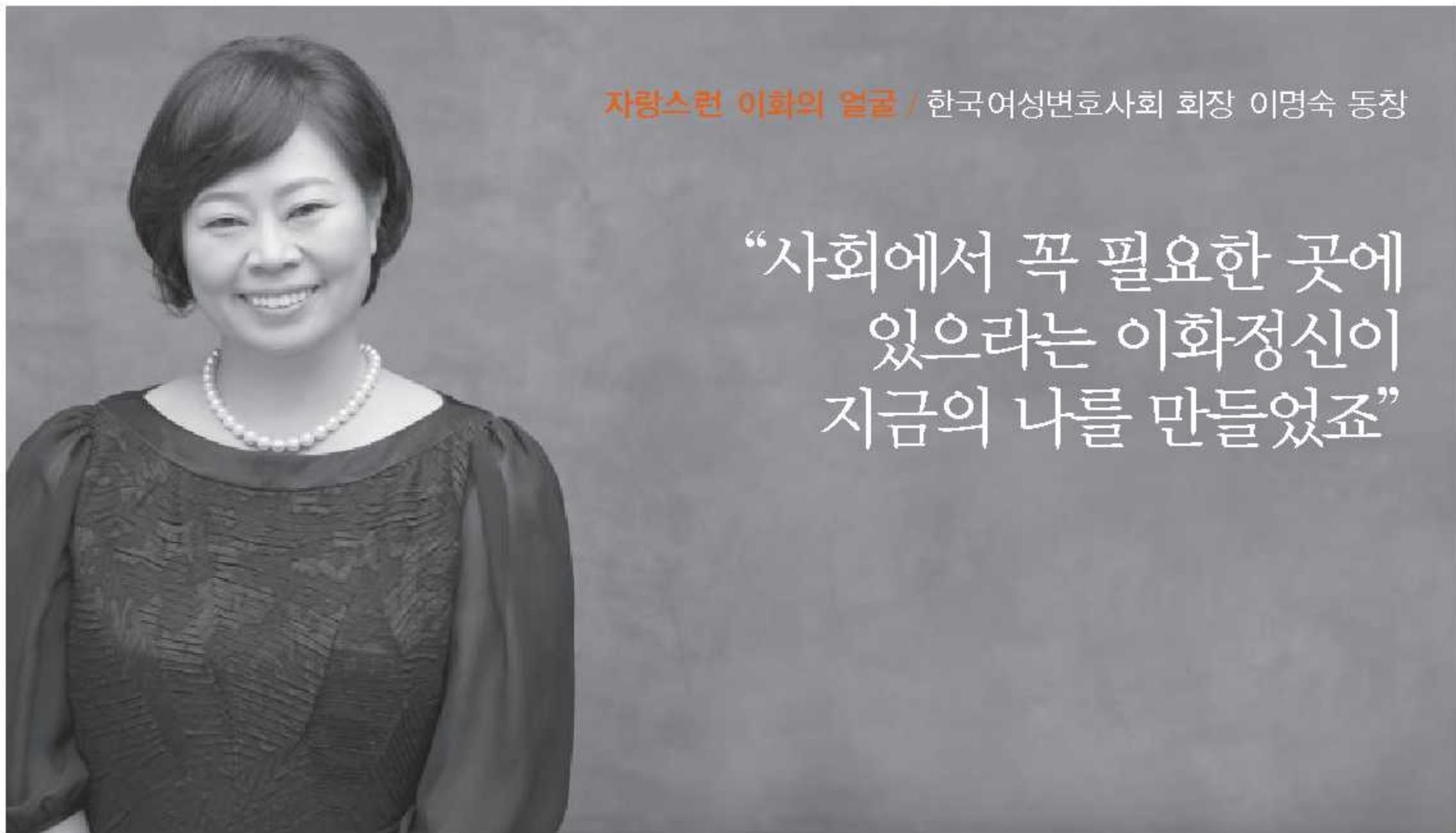
### 이화발레앙상블 이스라엘 공연

이화발레앙상블(무용과 신은경 교수·무용 78)이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초청으로 8월 8일(토)부터



이스라엘에서 성공리에 공연을 마친 이화발레앙상블

8월 16일(일)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국제행사에 참석하고 <아리랑 환타지>, <욥> 등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이 행사에는 전 선교부장 손문경(사회 82, 김일수 전 이스라엘 대사 부인) 동창이 동행했다. 이화발레앙상블이 앵콜 공연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며 <샬롬>을 춤출 때에는 참석자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등 현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선교부에서는 이화발레앙상블의 성공적 공연을 위해 현장 소식을 나누며 기도로 동참하였다.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동창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있으라는 이화정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도가니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나영이 사건, 지군 골프채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세월호 사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이 사람이 있다. 법무법인 나우리의 대표변호사 이명숙(법학 86, 사법연수원 19기) 동창. 그는 이혼법정 드라마로 유명한 〈사랑과 전쟁〉의 소재를 제공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1996년, ‘한국판 학교폭력 1호 소송’으로 불리는 사건을 맡으면서 이명숙 동창은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의 수호천사가 되어 갔다.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던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맡은 그는 당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이명숙 동창은 여성과 아동인권 신장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그러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달려 왔다. 20년 넘게 무료변론도 마다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변론을 자처한 그는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라는 묵직한 자리도 맡았다.

이명숙 동창과 인터뷰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바쁜 일정 때문에 전화연결도 어려웠고, 인터뷰 당일에도 재판이 잡혀 시간을 미뤄야 했다. 하지만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동창은 열정적으로 『이화동창』 인터뷰에 임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건물 전체 에어컨 전원이 꺼진 후에도 한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했다.

이명숙 동창은 만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살아요”라는 말로 바쁜 스케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나우리 대표변호사,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외부 일정도 많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케줄은 더 많았다. 그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일회성 변론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어진다. 인생에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을 겪은 의뢰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한 사후관리이다.

“소위 ‘도가니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 피해자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20대 후반인데 저를 누나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다가 누님에서 누나로 바뀌었죠. 세상

에 대한 불신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아이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했고 커피숍을 열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커피숍을 열면 저한테 맛난 커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웃음).”

피해자가 ‘변호사님’에서 ‘누나’로 부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 내내 험구하던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밤을 꼬박 새워 대화를 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소위 ‘나영이 사건’의 나영이 아버지와도 수시로 만나 나영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지군 골프채 사건’의 주인공인 지군과도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 어린 나이에 큰 사건을 겪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돋는 것이다. 지군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격려해 준다는 걸 알아야 좌절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영이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된 나영이는 잘 컸다”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긴 했지만 상처가 잘 치유된 편”이라고 최근 소식을 전했다. 그가 나영이 사건을 맡게 된 건 딸의 역할이 컸다.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네티즌들이 격분하는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주면 좋겠어요”라고 부탁한 것. 이 동창은 당시 나영이 사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했고, 변호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료 소송 지원을 자처했다.

### 두 딸의 롤 모델이 되다

이명숙 동창에게는 20대 두 딸이 있다. 두 딸에게 엄마는 멘토이자 롤 모델이라고 한다. 딸들은 “나는 엄마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라는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한다. 얼마 전 큰딸이 UN이나 NGO(비정부기구) 단체에서 엄마처럼 여성, 아동을 위해



그는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권리 보호에 특히 매진하고 있다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였다. 이 말을 들은 이 동창은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힘든 면도 많아요. 돈과 시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죠. 세월호 사건 때에도, 도가니 사건 때에도 자비가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움직여야 했고, 도가니 사건 때에는 한겨울에 법원 앞에서 난방기구도 없이 제대로 밥도 챙겨먹지 못하고 천막 농성하는 피해자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고기도 사주고, 난방기구 사라고 봉투도 건넸어요. 세월호 사건 때에는 세월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봉사하는 변호사 후배들을 위해 만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주기도 했죠. 무료 변호는 무료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죠.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어서 마이너스, 자비가 들어서 마이너

“사회가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어요.”  
모교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한  
이명숙 동창

스, 피곤해서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이런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마이너스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도가니 사건 때에도 세월호 사건 때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딸의 마음은 기특하지만, 엄마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느낀 아픔을 딸이 고스란히 겪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었다.

#### 고시반 장학생 1호 출신 법조인

이명숙 동창은 모교 법학과 고시반 장학생 1호 출신이다. 지금은 모교 출신 법조인이 어딜 가나 쉽게 눈에 띄지만, 그가 모교에 입학한 1982년만 해도 매우 드물었다. 모교 법학과의 교내 위상 역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법정 대학장이었던 윤후정 명예총장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법과대 교수들이 전국 고교를 돌면서 우수인재 영입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한 것. 법과대 교수들은 고등학교 측에 “교내 최고 인재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면 4년 전액 장학금, 4년 기숙사비 면제, 용돈까지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이 과정을 통해 8명의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모교 법학과에 진학했는데 이명숙 동창도 그중 하나였다. 이명숙 동창은 대구 신명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수재였다.

“당시 8명의 1기 고시반 장학생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생이 네 명이나 배출됐어요. 나머지 네 명 중 한 명은 국정원 고위 공무원이 됐고, 한 명은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학교 교장이 됐죠.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모교 법대 커트라인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고시반 장학생들이 오면서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많아졌고, 법대 커트라인도 높아졌어요. 법대 위상이 높아지면서 고시반 전면 장학생 제도는 없어지고 대신 골고루 장학금을 나눠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명숙 동창은 “원래 사명감이 강하셨나?”는 질문에 “모교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답했다. “모교에서 저를 고시반 장학생으로 데려와 공부시킨 건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이었죠. 공부하면서 ‘사회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 이대 출신 법조인, 격조와 품위 있어

그는 여성 변호사계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1993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첫해에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퀘이시)를 출간했다. 여성과 아동관련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으로, 이혼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법률 상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책 출간 이후 여성단체와 아동 단체에서 크게 환영했고, 여성과 아동 관련 일이 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게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명숙 동창(가운데)

이명숙 동창의 활동 내용은 열거하기에도 숨이 차다. ‘여성의 전화’ ‘사랑의 전화’ ‘여성상담센터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했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제정되는 데에도 크고 작은 역할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제정 및 개정에 그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바쁜 일정 중에도 그는 잊지 않고 선후배들을 꼼꼼히 챙긴다. 1년에 한 번씩 사법고시 합격생들을 불러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때에 따라 집으로도 초대하는데, 50명 가까운 선후배가 모인 적도 있다. 이 자리는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편안한 자리로 공식 모임은 아니다. 때로는 결혼중개 전문가를 초청해 ‘배우자 선택법’을, 주얼리업계 전문가를 불러 ‘때와 장소에 맞는 주

얼리 선택법’ 특강을 주선하기도 한다. 이 동창은 후배들을 잘 챙기는 법학과 선배로 이선희 동창(법학 73, 이선희법률사무소 대표)을 꼽았다.

그는 사회에서 모교 동창들을 만나면 “격조와 품위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 모교 출신 법조인들은 격이 있어요. 행동이나 옷차림에 흐트러짐이 없죠. 또 일을 정말 잘해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죠. 기품과 품위, 열정과 성실이 이화의 전통이자 경쟁력 같아요. 이화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는 사실 격이 있는 말이죠.”

이명숙 동창은 새벽 3~4시에 기상한다. 원고 쓰고 책 읽으며 일출을 맞는다고 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몸이 재산이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예쁜 몸매 말고 건강한 몸매를 가져라”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남겼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모교 소식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는 8월 28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총 1982명(학사 1027명, 석사 843명, 박사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주요 내외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경희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마음껏 세계를 누비며 꿈을 펼쳐 보일 역량을 갖추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서 평생을 함께할 자격을 얻었다”며 “정든 이화를 떠나 낯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힘차게 날아오를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자녀의 모든 학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믿고 지지해 준 학부모와 제자들을 정성으로 지도한 교수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 총장은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스스로가 다른 여성 후배들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닐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말한 ‘21세기의 리더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를 인용하면서, 확실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양영아(불문, 11학번) 학생이 학부 전체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귀순 북한동포 1명과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 2명이 학사모를 쓰게 됐다. 이 외에도 EGPP 장학생 3명을 포함, 베트남, 가나, 아프가니스탄, 중국, 미국 등 총 21명의 외국 국적 학생들이 학부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 2015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7월 6일(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육성사업’ 신규 선정 대학 명단에 모교가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 정부가 공인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ACE사업은 정부가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해 4년 동안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모교를 비롯한 수도권 6개교, 지방 10개교의 총 16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을 발굴해 육성하는 특별한 사업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의 본령이 학문과 연구에 있다는 점에서 ACE사업 선정은 대학의 근본적인 책무를 잘 수행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모교는 이번 사업 신청에서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THE인재’ 양성’을 키워드로 학부교육 발전 계획서를 제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THE인재’란 T(Telos·주도하는), H(Hokma·지혜로운), E(Experience·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이화여대의 의지가 반영된 신개념 인재상으로서, T는 ‘목적’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H는 ‘지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E는 영어 ‘Experience(경험과 실천)’에서 따온 말이다.

모교는 이번 성과가 “총장 이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합심 노력하여 혁신 이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두 함께 혁신 이화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모교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포함한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지표를 측정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8월 31일(월)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고려해 A,B,C,D,E 등급으로 구분했다. 결과에 따라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A등급은 입학정원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34개교, 전문대 14개교

이며, 모교는 A등급 대학 중에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정량평가는 최근 3년간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제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정성평가는 대학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와 평가위원의 인터뷰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다. 모교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된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또 정성지표와 정량지표가 혼합된 ▲학사관리(수업 관리, 학생평가), ▲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상담지원, 장학금지원, 취창업지원), ▲교육성과(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항목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취득했다.

구조개혁 평가는 개별 항목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다. 이번

결과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한 모교의 전통과 ‘세계 최고

를 위한 혁신이화’의 비전을 공유하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합심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과 ‘이화·한경 ACE 아카데미’ 1기 출범

모교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경영인이 함께 참가하는 최고위과정인 ‘이화·한경 ACE 아카데미(Advanced Creative Executive Academy·최고위 창조경영과정)’가 출범했다.

9월 1일(화)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모교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추진하는 ‘ACE 아카데미’ 제 1기 입학식이 열렸다. ACE 아카데미 1기 수강생은 국내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고위 임원 52명이다.

입학식에는 최경희 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모교 최경실 디자인대학원장 (ACE 아카데미 과정장) 등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여성 교육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이화여대가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기치를 창출하게 됐다”며 “문화예술과 감성 서비스 산업시대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권 제1차관은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갈 ACE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을 맘껏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김기웅 사장은 “각 분야 최고 교수진과 내로라하는 실력을 갖춘 1기 수강생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값진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ACE 아카데미의 출범을 환영했다.

입학식 후에는 제1기 수강생들을 위한 총장 초청 만찬이 총장 공관에서 열렸다. 최 총장은 국내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수강생들의 교류를 독려하며, 20만 8000명에 달하는 모교 동문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9월 8일(화) 첫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1일(화)까지 진행되는 ACE 아카데미는 모교의 강점인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창조경영을 접목해 21세기 문화와 감성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기업 경영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유연한 감성과 아이디어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ACE 아카데미의 교수진은 인문학, 문화, 디자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서, 철학자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금난새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고건 모교 석좌교수, 권영걸 (주)한샘 사장,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등이 강사로 나서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영감과 미래에 대한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선생님께 배웠어요”



이정환(전 모교 유아교육과 교수)

1955년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42년간 모교에서 봉직했다. 재임 기간 중 이화여대 부속 이화유치원 원장, 이화여대 부설 사회복지관 아동부 교육부장, 사범대학 부속 이화초등학교 및 부속 이화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유아교육과의 발전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발전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기관에 자문하며 한국 교육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한국어린이육영회의 회장을 맡아 유아 및 장애아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저서로 『영유아교육의 교수학습방법』『3·4·5세를 위한 유아교육과정(공저)』『유아를 위한 미술교육』『유아를 위한 과학교육(공저)』 등이 있다.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정환 전 모교 교수는 대한민국 4년제 유아교육(유교 55, 당시 학과명 ‘사범대학 교육학과 아동교육 전공’, 1957년 ‘학령 전 교육’으로 개칭) 정식 학사1호 출신이다. 한국 유아교육계의 거목으로 평가되는 김애마 교수(1903~1996·전 이화여대 사범대학장)의 제자였던 그는 한국 유아교육 발전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화유치원 원장을 맡아 11년간 두 차례(8대, 11대)에 걸쳐 운영하면서 『이화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만 3·4·5세 이화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등을 편찬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이화유치원의 선진 교육 체계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모델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유아교육은 성인 교육’ ‘유아교육의 핵심은 인격 교육’이라는 신념을 일찌감치 품었던 이정환 전 교수는, 원생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참교육을 실천했다. 지난 8월 24일(월) 모교 후문 근처 한식당 ‘석란’에서 만난 두 명의 제자는 이정환 전 교수에 대해 “나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 교사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만난 두 명의 제자는 김용희 한림성심대 유아교육과 교수와 박희경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둘다 유아교육과 89년 졸업생이다.

스승과 제자로서 만난 세 사람은 두 번의 시간 여행을 같이 다녀온 정도로 격의 없는 사이였다. 한번은 이정환 전 교수가 유아교육과 교수 시절 스승과 제자로, 또 한 번은 이화유치원 원장 시절 원장과 유치원 교사로서 동행을 했다. 자질한 에피소드를 끝 없이 펼쳐보이던 세 사람은 “1박 2일 동안 대담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 유아교육과 100주년을 맞다

**이정환** 올해가 모교 유아교육과 100주년이에요. 모교 유아교육과는 1914년 이화유치원이 생긴 이듬해인 1915년에 생겼어요. 유치원에서 가르칠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된 거지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화유치원은 부산 부민동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게 새삼스럽네요. 이렇게 제자들을 봐서 너무너무 좋고, 다들 바쁠 텐데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김용희 교수는 어떻게 그 먼 곳(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김용희** 선생님은 그대로시네요. 빨간 하이힐로 유명했던 패션스타였잖아요. 여전히 패션 감각이 남다르세요. 작년 이화유치원 100주년 행사 때 뵙고 1년여 만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정환** 할머니답게 지내고 있어.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지내야 해요. ‘내가 교수였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교수답게가 아니라 할머니답게 지내야 해요. 다른 할머니들이 나더러 재밌대요(웃음).

**박희경** 저는 이정환 선생님 하면, 몇 해 전 연말 선생님 댁을 찾아뵈었을 때가 떠올라요. 거실 창문에 제자들과 지인들한테 받은 성탄절 카드 수



이정환 교수와 제자 박희경, 김용희 동창(뒷줄 왼쪽부터)

십 개를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으로 붙여서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의자에 올라가서 직접 꾸미셨대요. 제 제자들이 “원장님의 원장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때 찍은 크리스마스트리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팔순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손수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분”이라고 소개하곤 하죠.

**김용희** ‘수양산 그늘이 삼백 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정환 선생님은 제게 수양산 같은 분이세요. 선생님 그늘 밑에서 성장하고 위로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셨죠.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잘되면 “너희가 잘 배워서 그렇

다” 하시고, 베풀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되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정환** \_\_\_\_\_ 너희들이 잘 배워서 그래. 나는 김애마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애마 선생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1951년 전쟁 중에 모교에 입학해서 1955년에 졸업했어요. 김애마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며 4년제 학제를 만드셨는데, 내가 첫 제자가 된 거지요. 그때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아 때 받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위대한 일이다” 하셨지요. 김애마 선생님의 강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육관이 남다르고 통찰력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 강의노트로 내가 책을 낸 거예요. 대학원도 김애마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주셔서 갔어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대학원을 가지 않으려 했는데, 하루는 부르시더니 “내가 등록금을 땄 테니 대학원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김애마 선생님께 배운 대로 반운경 선생(유교 62)이 대학원 갈 때 등록금을 줬어요. 안 받으려고 하길래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김애마 선생님한테 받은 걸 너에게 돌려주는 거다. 너도 나중에 제자한테 그렇게 해라”고 했지요.

### 유아교육은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

**박희경** \_\_\_\_\_ 선생님은 유아교육의 산 역사 같은 분이세요. 유치원 교사 시절, 점심시간이면 당시 원장이셨던 선생님과 식사를 자주 같이 했는데, 선생님이 모교의 역사, 유아교육과의 역사에 대해서 이



김용희 동창이 공들여 만든 압화 작품을 이정환 교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의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름다운 가정생활의 모습을 전해 듣고, 또 곁에서 뵈면서 인간 이정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의 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선생님을 모시면서 교사로 있었던 5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김용희** \_\_\_\_\_ 저는 학부 시절 선생님께 들었던 강의가 참 좋았어요. <유아교과목 지도>였죠. 당시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서 한 과목만 맡으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강의하셨던 기억이 나요. 듣는 내내 ‘그래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성적도 좋았죠(웃음).

**박희경** \_\_\_\_\_ 저도 그 수업 A 받았어요(웃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조는 학생이 없었어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었죠.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김용희** \_\_\_\_\_ 선생님은 다방면으로 해박하셨어요. 유아미술이나 유아과학 쪽으로 책도 내셨죠. 특히

창의력이 남다르셨어요. 과학적인 개념도 실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고구마 심을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 “얘야, 왜 고구마를 땅에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고구마는 흙을 파고들면서 자라니까 흙만 깊으면 되지 않니?”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쌀포대에 흙을 담아서 고구마를 심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나중에 수확하기도 편했고.

### “어머니로서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던 선생님”

**박희경** \_\_ 투철한 교육관도 존경스럽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복리후생과 처우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해외여행 자율화 첫해, 선생님이 교사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셨어요. “나중에 아이들은 해외에 많이 나갈 텐데 교사들이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하시면서요. 지금 유아교육과 학과장인 홍용희 선생님이 이화유치원 유아반 주임교사로 재직하실 때 다함께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죠.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는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정환** \_\_ 그게 김애마 선생님 철학이에요.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땅에만 있으면 땅밖에 더 보여요?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하셨지요. 아이들이 스키장 다녀와서 레드를 탔네, 옐로우를 탔네 하면 선생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요.

**김용희** \_\_ 맞아요. 그래서 교사 연수를 스키장에서 했잖아요. 저는 스키를 1991년 이화유치원 교사 연수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때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워서 이 나이에도 스키를 타요.

**박희경** \_\_『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도 있는데, 저는 제가 배워야 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이화유치원 교사 시절에 다 배운 것 같아요.

**김용희** \_\_ 저도 동의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을 유치원 교사 시절에 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교사들끼리 배낭여행도 편하게 다녀오기도 했어요. 몇몇 교사끼리 휴가차 배낭여행을 기획했는데, 선생님이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 주셨어요. “한 번 정도는 꼭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세요”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사재를 털어주신 거예요. 덕분에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때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박희경** \_\_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다 하려면 1박 2일로도 모자랄 거예요.

**김용희** \_\_ 삶의 굽이굽이마다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아이코리아 회장으로 계실 때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해외연수를 가서 많이 보여 주고 가르쳐 주셨죠. 저희는 해외에 자주 다니지 못해서 가도 뭘 봐야 할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 주시는 거예요. “얘야, 저것 좀 봐라. 저건 예사로운 게 아니야. 저 담쟁이덩굴이 오르면서 미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니?” 하는 식으로요.

**박희경** \_\_ 교사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덧 원장이 되고 보니 초임 교사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세상을 살수록 새록새록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선생님한테 받았던 사랑과 배움을 현장에서 나누려 노

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정환** \_\_\_\_\_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지. 유치원 교사 시절 김용희 선생은 참 창의적이었고, 박희경 선생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똑 부러지게 가르치는 교사였지요. 김용희 선생이나 박희경

선생 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꿔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채용할 때 성격이 원만한지,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산실, 모교 유아교육과 100주년!

모교 유아교육과는 1915년 2년제 '이화유치원 사범과'로 개설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1914년 1월, 한국 최초의 유치원인 이화유치원이 개설된 이듬해 유치원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화유치원 사범과'를 창설한 것이 모교 유아교육과의 시초다. 이화유치원은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 브라운리(C. G. Brownlee)가 서울의 이화학당 안에 원아 16명을 대상으로 열었고, 1915년 브라운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모교 유아교육과는 한국 최초의 유치원 교사 양성 전문 기관인 셈이다.

모교 유아교육과는 한국 유아교육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모교 유아교육과를 통해 배출된 유치원 교사들은 이화유치원은 물론, 초창기 대한민국 유치원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제1차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에 기여하기 시작해 2012~2013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도 이화유치원 교육과정이 근간이 됐다.

'유치원 사범과'로 출발한 유아교육과는 몇 차례 학제 변동이 있었다. 19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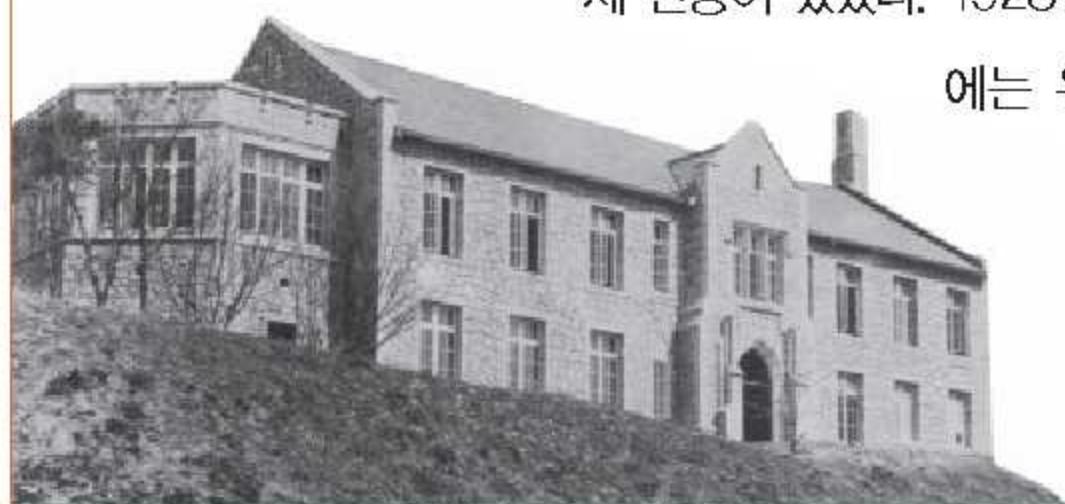
에는 유

치원 사범과를 이화보육학교(2년제)로 개칭하면서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독립했고, 1941년에는 이화보육학교가 폐지되면서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보육과(3년제)로 병합됐다. 큰 변화를 맞은 시기는 1951년이다. 이때 모교에 한국 최초의 사립 사범대학이 발족되면서 4년제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아동교육학과는 교육학과의 아동교육 전공에 포함됐다. 1957년에는 교육학과가 학령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학의 4개 전공으로 세분화됐다. 현재의 명칭인 '유아교육 전공'으로 개칭한 것은 1984년이다.

지난 100년간 모교 유아교육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국난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정신을 지키고 교육기회를 꾸준히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 초·중등 교육이 일제의 탄압으로 왜곡된 교육을 실시한 것과 달리, 이화유치원 사범과는 한민족 고유의 얼을 심어주는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6·25 전쟁 중에는 부산 부민동에 기건물을 지어놓고 유아교육의 명맥을 이어 갔다.

모교 유아교육과의 창설 및 변천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시발점이자 발전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아교육은 이화유치원 사범과의 설립으로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시초가 됐다.

자료:『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90년사』



## 취업준비생의 든든한 지원군

재학생은 물론 졸업 후 커리어로드맵까지 관리해주는 체계적 지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관문, 취업 시즌이다. 이맘때쯤이면 당사자도,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과 몸이 분주해진다. 개교 이후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 왔던 모교 취업보도실은 더욱 치열해지고 좁아지는 취업 시장에 맞서 2003년 경력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전열을 재정비했다. 취업을 앞둔 이화동창 자녀를 두었거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는 모교 동창생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곳, ECC 건물 B307호에 있는 경력개발센터를 다녀왔다.

대기업 임원 비중 1위, 외국계 기업 종사자 수 1위, 공직 내 여성 열풍을 주도해 온 이화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뒤에는 경력개발센터가 있다. 이전 취업보도실이 기업과 졸업생과의 매칭이 주였다면 경력개발센터는 ‘경력개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까지 인생 주기별 커리어로드맵을 세우고, 학년 주기별, 단계별 그리고 각 분야별 특성화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스킬 교육보다 직장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력개발센터의 지원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 학년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화인이라면 모교 입학과 함께 경력개발센터의 본격적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1학년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3월에 개최하는 ‘1학년 커리어디자인 박람회’는 인턴십·대외활동·교내 활동 등에 참여했던 재학생 선배들의 멘토링과 그 후속으로 진행되는 ‘1학년



1학년 커리어디자인 박람회

'세미나 연계과정'을 통해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로 구성된 CDC 서포터즈는 이 행사의 개발부터 홍보·진행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마다 3000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2학년 때는 ‘2학년 커리어 멘토링’에서 선배들과 함께 자기 역량에 맞는 직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학년 학생이라면 현재 기업 채용의 최대 키워드인 ‘실무형 인재’에 맞게 ‘인턴십 스타트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준비부터 참여까지 전 과정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파악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취업 최전선의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취업특별반인 ‘4학년 취업 마스터클래스’를 두고 기업분석과 산업, 직무별 특강부터 서류, 직무적성검사, 면접까지

그 외에도 공직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국가고시 준비반과 공기업 준비반을 눈여겨볼 만하다. 국가고시 준비반은 행정·외무·입법고시별로 특화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하반기에 예정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관련한 특강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화-포스코관 7층에 있는 96석의 고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 기업의 취업을 위한 ‘글로벌 기업 진출 클래스’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력서·인터뷰 특강 및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인문계 재학생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을 목표로 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 과정에도 참여 중이며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공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SCSA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성향 분석에 기반한 분야별 특성화된 클래스 마련

자신의 관심과 성향에 맞추어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학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다. 1학년 커리어 박람회에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4학년들을 위한 ‘4학년 취업 마스터 클래스’에는 연간 약 3000~4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취업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더라도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본인에게 중요한지 생각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민아 경력개발센터 원장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당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나의 전공에 특화된 취업상담과 경력개발정보가 필요하다면 9월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CDC’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경력개발센터가 9~10월 각 단과대학별 2회씩 단대별 건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문 컨설턴트의 전공 맞춤형 상담, 경력개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찾아가는 CDC에서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취업클리닉·상담’ 상담 전 담인력인 취업지원관과, 각 상담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가진 경력개발센터 연구원에게 커리어코칭을 받을 수 있다.

### 이화인을 위한 학년별 취업맞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적극 탐색하라”

경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루트 개발에도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수한 인력풀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빗나간 화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나 웹서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또 이를 발 빠르게 각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가이드북을 발행해 재학생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과의 매칭에 있어서는 4년간 쌓아온 커리어로드맵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과의 최적화된 매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순 입사만으로는 회사와 학생, 학교의 세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경력개발센터의 노력에 교수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취업 멘토 교수제’가 그것이다. ‘경력개발센터-전공별 교수’라는 이원체계에 기반해 취업·진로설정 지도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공별 100명의 교수들이 전문지식과 전공 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대일로 3~4학년 학생의 경력개발 상담을 한다. 올해에는 학

생들의 진로·취업지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수들로 구성된 ‘산업체연계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무를 결정한 재학생들이 이를 미리 경험해 본다면 취업 후 바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력개발센터는 국내외 인턴십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턴십은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국내는 방학/학기로 운영하며, 50여 개 기업과 협약하여 연간 600여 명의 학생을 파견한다. 파견 중에는 학교에서 인턴지원금 및 학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전담 인력이 무사히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해외 인턴십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기/방학을 나누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의 협약 진행, 파견·학점 인정은 물론 학교에서 직접 파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턴십은 학생과 기업을 잇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글로벌기업, 나아가 해외 유수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버건퍼모밍 아트센터 협약식

### 후배를 돋는 선배들의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선배들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가 그것.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멘토와 재학생을 일대일로 연결되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선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종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의 조언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최혜원 직원은 이 서비스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이렇게 피력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유레카 통합행정시스템을 통해 후배가 적합한 선배를 검색해 궁금한 질문을 올리면 경력개발센터에서 선배의 이메일로 해당 질문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대기업·외국계·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큐레이터·변호사·기자·통번역사·회계사와 같은 특수 직군의 선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 중인 총 90명의 선배들이 온라인상에서 재학생들이 보내는 수백 개의 질문에 수시로 답하기도 하고,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조언을 하는 등 적

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선배들의 답변은 보통 일주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통해 인턴십에 참여할 후배들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에 거주하던 동창이 협약식을 통해 아들의 회사인 BergenPAC(버겐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인턴십으로 일할 후배들을 추천받기도 했다. 특히 이런 해외 인턴십 활동은 90% 이상 취업으로 이어지며, 국내 인턴십 수료학생의 경우도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선배 동창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졸업생도 이용 가능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 시기를 놓쳤거나, 육아와 이직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입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은 경력개발센터로 연락하면 4학년 대상 프로그램인 ‘취업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의 졸업생들은 경력기술서와 희망 직종 등에 대해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취업클리닉/상담에서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의 네트워크인 이화 직장인클럽 ‘PEER(Powerful Ewha Employment Relationships)’에 등록해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직장 경험도 전수받을 수 있다. 피어에는 약 1700명이 자발적으로 지역·직군 별로 별도의 소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센터에서도 매년 정기 모임을 통해 졸업생들 간의 네트워킹을 돋고 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은 모든 이의 꿈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희망 로드맵을 그려오면 가장 유용한 커리어코칭을 받을 수 있겠지요.”

박지현 팀장은 최근까지도 모교의 졸업생들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화인이 자기주도적이며 직무 수행 능력과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고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심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 형성에 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자랑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화의 후배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 동창생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경력개발센터를 나오면서 들은 마지막 말이 내내 뒤통수를 따갑게 했다. 매일이 불안하고 가슴 졸여야 했던 취업 준비기에 나 역시 따뜻한 선배의 손길을 기다렸던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 각종 증명서 손쉽게 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학부는 1966년 이후 졸업생, 1962년~1981년 제적 학생, 일반대학원 및 특수, 전문대학원의 모든 학생이 해당되며 교육대학원은 1989년 입학생부터 가능하다. 기존 구 학적 졸업생 중 1966년~1985년 학부 졸업생, 1962년~1981년 제적생, 1954년~1984년 일반대학원 졸업생은 최초 통합 포털 사용 등록을 해야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 1. 인터넷 증명 발급하기

이용방법: 인터넷증명발급 클릭 → 로그인(학번+포탈비번) → 인터넷증명발급신청 선택 → 증명서 종류, 통수 입력 → 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출력(컬러프린터)

영문증명서 발급 시 이화포탈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변경에서 영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인터넷 발급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국내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단 외국 기관에 제출할 경우 제출처에서 인터넷 증명서를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사전에 체크하도록 한다).

각종 증명서 중 학적부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유학 지원 서류로 본교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송해줄 것을 원하는 경우는 학생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발급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2. 인터넷 우편 발급하기

이용방법: 인터넷증명발급 클릭 → 로그인(학번+포탈비번) → 인터넷우편 발급신청 선택 → 증명서 종류, 통수 입력 → 우편 수령방법, 신청인 정보입력 → 결제(신용카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 → 신청 완료

우편은 1일 1회 일괄 발송하며 국내우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해외우편은 일반항공우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DHL은 3~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안에 받을 수 있다.

## 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 밖에도 행정 관서나 전자정부 웹사이트(<http://www.minwon.go.kr>)(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6:30이며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된다(단 전산화 이전 학부 1981년 이전 입학생, 일반대학원은 1984년 이전 졸업생, 교육대학원은 1982년 2월 이전 졸업생이나 1988년 이전 입학생 중 제적생의 영문 성적증명서는 1일 소요된다). 국내 기관이 아닌 외국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에서 팩스 증명서를 인정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 4. 방문신청

인터넷 발급이나 인터넷 민원발급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학교를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는다. 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ECC B303호 학생서비스센터 앞 로비이며 이용시간은 07:00~22:00(주말 이용가능), 이화포탈 ID/PW 로그인 후 발급받는다.

자동발급기 이용이 어렵다면 학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CC 지하 3층에 있으며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 ~17:00이다.

직접 방문 시 유의사항 ① Exchange Students의 성적증명서는 국제교류처로 신청(02-3277-3161)할 것 ② 대리인이 증명 발급 방문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정보 주체·위임하는 사람)과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 밖에 학사증명서 외의 기타증명서(교원자격증 재발급,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 장학추천서, 교수 및 시간강사 재직증명서 등)는 해당 부서에 별도 문의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글·전세영(사학 94, 0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미얀마 한혜경 동창

## 기독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게 하소서”



6월 13일~17일 양곤에서 5시간 떨어진 에야와디 주의 힌따라는 도시에서  
구순구개열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

요즘 미얀마는 10년 만의 홍수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돌고 있어 현지인뿐 아니라 교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저희에게 왔던 서울아산병원 봉사팀 팀원 중 한 명도 도착하자마자 그 병에 걸렸는데 봉사하는 기간 내내 한 명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에서 이재민을 위해 모금하는 사람들, 구호품을 가득싣고 가는 트럭, 재해지역에 자원봉사를 가는 버스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홍수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월 첫 2주 동안 단기선교 두 팀이 연속으로 와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8월 첫째 주 서울아산병원 팀은 양곤 부근 매우 가난한 지역 세 곳에서 약 8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서울의 한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왔는데 요즘 청소년 같지 않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적인 섬김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희 부부에게는 참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심장병 환자 3명과 보호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이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해줄 이 선교사님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을 진행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 건축은 우기가 끝날 무렵인 9월 말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은 이 선교사님이 서울의 한 교회로부터 받은 1억을 가지고 2층 건물을 지어서 절반을 병원으로 사용하되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 장비, 그리고 병원 운영을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비를 알아보니 1제곱피트당 2만 원 정도여서 4000제곱피트의 건물 2층을 지으려면 최소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총 공사비로 2억 원 정

도가 필요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받은 현금은 1억 원이고 그 교회가 더 이상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비의 절반인 1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CTS 방송을 통해 저의 사역이 방영된 이후 많은 분들이 기독병원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재 약 3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금액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는 의료 시설과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면 돈이 많이 드는 병원에 가기보다는 동네 약국에서 값싼 약을 사 먹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보건소 수준의 병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계획 중인 기독병원 건축이 끝나면 제2, 제3의 기독병원을 양곤 부근의 빈민지역에 힘닿는 한 계속 지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심하게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수액 주사를 놔주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재 추진 중인 기독병원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본인의 선교 센터 부지에 병원을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벌써 제2 기독병원의 부지가 확보된 셈입니다. 아무쪼록 기독병원에 대한 저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학당은 지금이 원래 정규과정이 없는 기간이지만 10월에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비해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특별과정이 끝나고 나면 9월 2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요 성경 모임에 나오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갔고, 현재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꾸



미얀마 양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

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잘 양육해줄 교회를 찾는 일도 쉽지 않고 본인들도 처음 교회에 가는 것이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시작을 계기로 토요 모임을 보다 공식적인 교회 예배 형식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영접한 학생들에게는 좀 더 체계적인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토요 모임이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기도해 주세요 ♥

1. 홍수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마 사람들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2. 현재 진행 중인 기독병원 건축에 필요한 공사비 모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4. 2학기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토요 모임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고 잘 정착되도록
5. 저희 부부가 주님 안에서 친밀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6. 세 아들(재성, 재원, 재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글·장철호(한혜경·특교 85 동창 부군, 의료선교사)

#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 인문과학대학

회장\_\_김혜원(불문 68)

### 인문대 회장단 회의

9월 7일(월) 신사동 젠 하이드 어웨이에서 열린 인문대 회장단 회의에는 김혜원 회장을 비롯한 각과의 동창회장 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문과 회장을 사퇴하게 된 이호정(중문 87) 동창의 환송회를 하였고, 성공적인 바자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인문대 동창회장 김혜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동창을 비롯한 회장단(가나다 순). 김청자(국문), 엄소연(철학), 이영재(철학), 이정숙(영문), 이호정(중문), 정인숙(기독), 한혜련(사학)

## 사회과학대학

회장\_\_김미령(신방 69)

### 2학기부터 매년 2명에게 장학금 지급 결정

7월 24일(금)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임원 및 각

과 동창회장이 모여 장학금 지급과 기금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인영(사복 72)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을 축하하는 자리도 겸한 이날 오찬 모임에는 김미령 회장 및 이양준(정외 70) 고문, 김이경(문정 77) 감사를 비롯한 각과 동창회장 10명이 참석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오랜만에 가진 이날 모임에서 김미령 회장은 7월 총동창회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어 새로 선출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석영인(77) 동창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10명의 회장단은 1학기에 중지했던 사과대 동창회 장학금 지급을 이번 학기부터 매년 2학기 초에 100만 원씩 2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기준은 학업 성적이 좋으며, 학과나 학생회 활동에 적



사회과학대 7월 모임

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마다 수해 대상 학과를 바꾸어서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하며 소액이지만 후배들에게 동창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마다 10월에 사회과학대 동창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나눔가게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가되, 일일 봉사 대신 물품 기증과 동창들의 방문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동창들의 모교사랑을 확인하고 좋은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던 유쾌한 만남은 오키친 광화문점에서 있었다.

## 음악대학

회장\_\_임진(작곡 72)

### ‘이음회’, 토스카나 뮤직페스티벌 참가

음악대학 동창합창단 ‘이음회(지휘 이수연, 성악 92)’가 7월 18일(토) 독일 레겐스부르크 울리히성당 미사연주에 참가하고, 7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는 이탈리아 몬테까티니 페르에서 열린 토스카나 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토스카나 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한 음대 동창합창단 ‘이음회’

마음껏 펼치고 왔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이음회는 아름다운 화음은 물론 단아한 한복의 자태와 더불어 화려한 부채춤까지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받았다.

## 의과대학

회장\_\_오혜숙(의학 78)

### 정기회의 및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5년도 동기회장 및 지회장 정기회의(제9차)가 6월 13일(토) 종로 나인트리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갑자기 출몰한 ‘메르스’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6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학술강좌와 더불어 ‘우리 지회–우리 동기회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도 있었고, 이화의료원 제2병원 건립 기금 모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의대 2015년도 동기회장 및 지회장 정기회의

제6회 이화의대 동창회 골프대회가 8월 30일(일) 수원 C.C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15회 남소자 동창부터 42회 한성희 동창에 이르기까지 48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한낮의 햇볕은 따가웠지만 선선한



의과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및 동창의 밤

가을바람 덕에 동창 간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날 메달리스트의 영광은 남소자 동창이 차지했다.

‘의과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및 동창의 밤’ 행사가 9월 5일(토) 나인트리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있었다. 최경희 총장의 축사와 더불어 내외규빈 및 동창 3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오혜숙 회장(78)은 1945년 9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모교 의대가 현재 40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치유와 사랑의 빛 이화’가 모토인 의대 발전을 위하여 동창 모두 힘을 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이화행림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과대학 각 교실별 역사와 구성 및 비전’ ‘이화의 정신인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동문들’ ‘이화행림 100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발표되었다.

##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 정기 임원·기대표회 및 ‘화합의 날’ 행사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임원회가 메르스로 인해 7월 2일(목) 카페 루치아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용희 회장의 4월 정원노인요양원 방문, 용산가족공원에서의 화합의 날 행사, 동창의 날 행사의 합창대회 수상 등 그동안의 행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각부 보고가 있었다.

안건토의에서는 8월초 동창회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기 소식 등의 자료 부탁이 있었고, 약대 건축기금 모금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료관리부 김영진(약학 90) 부장은 약대동창회 홈페이지가 만든 지 10년이 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업그레이드에 관해 보고하였다. 의견을 모은 결과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하고 박수로 통과시켰다.



약학대학 정기임원회

###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연락주십시오!

《이화동창》이 반송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ewhaalum@ewha.ac.kr

# 과(학부) 소식

## 중어중문학과

회장\_\_강영매(86)

### 동창회 장학금 기탁

중어중문학과 동창회는 지난 8월 31일(월) 이화중문 동창회 장학금을 모교 대외협력처에 기탁하였다. 이화중문 동창회 장학금은 2011년에 중어중문과 동창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졌으며, 중어중문학 전공 학부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과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동창회 장학금도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동창들의 십시일반 참여가 이루어져 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불어불문학과

회장\_\_마송민(75)

### 아미중창단, 아미합창단으로 재탄생

6월 17일(수) 한일관에서 정기 아미간사 모임이 있었다. 6월 모임은 신임회장 마송민(75) 동창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동창회이기에 더욱 뜻깊었다. 특히 당시 유행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 기수 간사들이 거의 참석하여 불문과 선후배 간의 두터운 동창애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불문학과 24회 동기들로 결성된 아미중창단은 5월 이화동창의 날 합창제를 계기로 전체 동창들 모두에게 열린 아미합창단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날 합창제에서 불문과 아미합창단은 〈Fly me to the moon〉 메들리를 불러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노래를 사랑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인 아미합창단은 모교 성악과를 졸업한 윤선영(성악 15) 동창을 자취자로 영입하여 이화 동창의 힘을 합창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문과 아미동창회는 아미합창단을 위해 소정의 기금을 마련하여 합창단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뮤지컬 지저스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에서 채림 동창(86)의 자녀 함연지 양이 마리아막달레나 역을 열연하였다. 아미동창회는 7월 9일(목) 공연을 관람하고 열정적이고도 감동적인 수퍼스타 분위기에 흠뻑 젖었다.



불문과 아미동창회 임원진 모임

## 사학과

회장\_\_한혜련(75)

### 사학과 동창회장 유임 결정

6월 25일(목) 석란에서 간사회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간사회에서는 5월에 열린 고문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 한혜련 회장의 유임이 결정되었다. 한혜련 회장은 앞으로 사학과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와 비전을 밝히고 아울러 9월로 예정된 총동창회 바자회에 관한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였다.

사학과 동창회의 간사회는 1회부터 55회까지 각 기의 간사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사학과 동창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5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각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학과의 전통을 훌륭하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월 1일(화)부터 김영의홀에서 아틀간 파이프 오르간 페스티벌(Pipe Organ Festival at Ewha)이 열렸다. 모교 오르간 전공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9월 1일(화) 오후 7시 30분 ‘지그몬트 자츠마리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Zsigmond Szathmary Pipe Organ Recital)’와 2일(수) 오전 10시 ‘지그몬트 자츠마리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막을 내렸던 Faculty Concert 및 특강에 이어, 이번 페스



건반악기과 주최 파이프 오르간 페스티벌

## 생명과학과

회장\_\_윤정희(79)

### 신·구 임원 교체 결정

5월 29일(금) 생명과학과 정기 총회에서 신·구임원 교체를 결정하였다. 8월 25일(화) 신임 회장으로 25기 윤정희(79) 동창이 선출되었다.

티벌은 세계적인 현대음악가인 오르가니스트 지그몬트 자츠마리를 초청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번 독주회는 지그몬트 자츠마리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더욱 귀중한 무대였으며, 그의 연주를 통해 다양하고 아름다운 음색의 오르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마스터클래스를 통하여 그의 오르간 음악 및 테크닉, 레지스트레이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고, 늘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오르간 전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리를 빛내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파이프 오르간 페스티벌은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해

## 종교음악과

회장\_\_최은희(81)

### 파이프 오르간 페스티벌 열려

모교 음악대학 건반악기과 오르간 전공 주최로

외 유명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운영과 모교 오르간 전공 홍보, 장학금 마련 등 본 전공의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서양화과

회장\_\_차명임(82)

#### 녹미회 전시회와 녹미인의 밤

6월 6일(토)부터 6월 21일(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녹미회(서양화) 주최로 열린 <LOOK at their STORIES\_이화포트폴리오 2015> 전에 서양화과 동창 고신금(88), 송상희(92), 정소연(92), 안세은(94), 권자연(95), 박지은(95), 정은영(97) 작가가 참여하였다.

6월 19일(금) 성곡미술관에서 녹미회(서양화) 주최로 열린 ‘녹미인의 밤’ 행사에서는 세미나, 리셉션, 축하공연, 녹미옥션,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 조소과

회장\_\_고혜숙(77)

#### 은사님 모시고 사은의 자리 가져

‘올해의 이화인’ 박신정(85) 동창의 초대로 조소과 동창회 임원진은 퇴임한 강태성 교수, 최병상 교



조소과 스승의 날 행사

수를 모시고 2015년 5월 12일(화) 사은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6월 19일(금) 성곡미술관에서 ‘녹미인의 밤’ 행사가 열렸으며, 녹미전 65주년 특별기획전인 <이화포트폴리오 2015> 전에는 조소과 동창 김윤경(93), 함연주(94), 조은지(95), 강선구(99), 김순임(02), 장유정(02) 작가가 참여하였다.

### 섬유예술과

회장\_\_봉지희(85)

#### 예미회 회장단과 임원 MT

섬유예술과 동창회인 예미회는 7월 3일(금) 양평 헬렌김 머피갤러리에서 이효범(61) 역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현 임원들의 MT 및 예미회 정기회의



섬유예술과 예미 회장단 회의

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형예술대학 동창 행사였던 녹미초대전과 녹미인의 밤 결과 보고, 상반기 예미회 활동 경과 보고 및 하반기 활동 계획이 논의되었다. 오광섭 조각전 감상과 함께 아름다운 양평 물가의 경치를 즐기며 식사와 회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선후배 동창 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한편 섬유예술과 동창 대다수로 구성된 이화섬유조형회(회장 봉지희)는 8월 21일(금)에 유럽의 섬유, 라이프 스타일박람회에 관한 리포팅

세미나를 연성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Heimtextil, 프랑스 파리의 Maison Objet, 이탈리아 밀라노의 Homi의 박람회 주제와 구성, 전시 아이템을 사진으로 감상하며 세계적인 이슈와 트랜드를 엿볼 수 있었다.

## 보건교육과

회장\_\_고효선(79)

### 2015년 동창회 신·구임원 상견례

보건교육학과(현 보건관리학과)가 2013년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제7대 동창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6월 23일(화) 압구정 중식당에서 전 영부인 김윤옥(70) 동창과 함께 신·구임원 상견례를 조촐하게 가졌다. 동창회 소식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의논을 하는 한편 김윤옥 동창의 그간의 활동과 솔직하고 소탈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조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선배들이 아직도 열정적인 사회활동과 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화인’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열띤 내용으로 3시간이 훌쩍 지났고, ‘동창 친교 모임’을 가을에 갖기로 약속하며 다시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전 영부인 김윤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동창과 신·구 임원

## 국어교육과

회장\_\_문영은(10)

### 학과 동창회 임원진 모임

국어교육과 동창회는 8월 7일(금) 동창회 임원진 모임을 가졌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전학번 대표가 모여 동창회 사업과 장학금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그간 못다한 담소를 나누며 우정을 다졌다. 국어교육과는 2006년 3월 첫 발을 딛고 2009년 8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내년 학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180여 명의 졸업생은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 강사, 연구원, 아나운서, 작가, 출판인, 행정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국어교육과 학과동창회 임원진 모임

## 경영학과

회장\_\_서지희(85)

### 밤송이 같이 알찬 결실의 계절을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바람을 느끼며, 경영학과 동창회는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8월 10일(월) 강남구 역삼동 GFC 파이낸스 센터 코바치에서 모인 경영학과 동



경영학과 동창회 모임

창회 위원들은 동창회 가을 정기 바자회를 필두로 경영학과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데이 행사, 비즈니스 경진 대회와 CPA 데이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그 준비사항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동창회 가을 정기 바자에는 이순영(85) 동창이 영국산 포트메리온(Portmeirion) 주방용품을 기부하기로 하여 동창회 바자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게 하였다. 이순영 동창은 앞서 열린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또한 경영학과 학생회 주관 멘토링 데이 행사는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선배 동창의 진정성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그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외 비즈니스 경연대회와 CPA 데이 등의 행사도 예년과 같은 열정과 꼼꼼한 준비로 후배들에게 이화 경영 동창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끈끈한 동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지희 회장을 비롯, 임혜란(78) 경영학회회장과 이봉학(81) 전임 동창회장 및 여러 동창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열리지 못한 경영학과 졸업 25주년 홈커밍 행사를 2016년에 진

행하기로 하여, 관련 사항을 23기 대표인 김지훈(90) 동창에게 전달하였다. 2014년에 뜻 깊은 창립 50주년 행사를 치러낸 경영학과 동창회는 선배 동창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새로운 50년, 밝은 100년을 내다보는 이화의 미래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 식품영양학과

회장\_\_최수주(75)

#### 식품영양학과 50주년 기념식 안내

식품영양학과는 1929년 창립된 가정과에서, 1965년 가정대학 소속 식품영양학과로 분과되어 올해 50주년(가정과 영양 전공 86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과와 동창회(최수주 회장, 정조인 부회장)는 이대 ECC 이삼봉홀에서 학과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 준비로 지난 5월 29일(금) 동창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생활과학관 508호에서 교수님을 비롯, 각 기의 대표, 동창회 임원들이 모임을 가졌다. 50주년 기념식은 장소 관계로 날짜가 변경되어 차후에 다시 알릴 예정이다. 기념식 전에 동창들을 위한 학교 투어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동창들이 모여 식품영양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동창의 날 행사 후 식영과 모임

#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 남가주 지회

회장\_장계원(문정 76)

### 재학생 장학금 수여 및 총장배 골프 대회

국제재단에서는 남가주동창회의 이름으로 매년 우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4년엔 최현아(과교과 화교전공 3학년), 오명우(국교 4학년), 권원경(경영 4학년), 조민영(영양 및 식품경영 4학년)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3월 30일(월) 제12회 이화여대 총장배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가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이 골프 대회는 2003년부터 동창 자녀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동창 및 가족, 게스트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지난 4월 25일(토)에는 55명의 동창들이 모여 솔뱅, 산타바바라로 일일관광을 다녀왔다. 이 행사를

위해 김현숙(신방 74) 총무, 장경해(피아노 75) 부회장 및 임원진들이 음식과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주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솔뱅 덴마크타운에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과 와인 테이스팅을 즐겼다. 오후에는 산타바바라 관광이 이어졌다. 화창한 날씨에 90세 이상 연로한 선배부터 05년 졸업한 막내 동창까지 함께한 즐겁고 유쾌한 하루였다.

5월 2일(토)에는 이사회를 열고 회계 보고, 서기 보고, 회장 보고에 이어 올해의 사업을 의논하였으며, 임원회의가 4, 6, 8월에 열려 4월의 일일관광, 9월 추석 행사, 10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가, 12월 송년 파티 등의 행사를 논의했다. 송년파티는 12월 13일(일)에 LA Wilshire Country Club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경자(섬예 64) 동창이 그동안 모은 재료들을 녹미회에 기증하였고, 8월 1일(토) 예다아트에서 있



남가주 지회 솔뱅, 산타바바라 일일관광



남가주 지회 이화여대 총장배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었던 녹미회 모임에선 제4회 녹미전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번 녹미전은 아나하임 시의 Muzeo Museum에서 내년 1월 9일(토) 열릴 예정이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찬양 연습을 통해 신선한 활력소를 경험하는 동문합창단은 매주 토요일에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정기연습모임을 갖고 있으며, 9월 20일(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매년 두 번 동창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남가주동창회보의 새 편집장으로 이정현(도서관 76) 동창이 수고를 하게 되었다. 지난 7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전 편집장 이영강(국문 66) 동창에게 감사를 드린다.

## 뉴욕 지회

회장\_\_김기령(영문 81)

### 배움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친목을 다져

6월 6일(토) 조문경(영문 86) 동창의 사무실에서 뉴저지 지역의 동창들이 모여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Met Life에서 세금과 연금에 투자하는 특강을 하였고, 장지윤(영문 64) 동창이 ‘인간과 동물과 수목과 돌멩이들’ 이란 주제로 에크하르트 톨레의 『Now』 책에서 뽑은 좋은 구절들을 가지고 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1일(토) 김기령 회장의 집에서 바비큐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나온 동창들, 새로 나온 동창들, 50년 졸업부터 07년 졸업한 동창과 이화 사위들도 함께 어우러져 담소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8월 26일(수) 미술관을 함께 둘러보는 깜짝 모임을 가졌다. 미술사를 전공한 외부 교수와 함께 사전트 특별 초상화와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시대배경 설명과 초상화의 인물 설명, 사전트와 인상파 시



뉴욕지회 바비큐 모임

기 등의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8월 31일(월) 텔런트쇼를 위한 연습 및 임원회가 김기령 회장 집에서 있었다. 열심히 연습하고 박장 대소하며 건강한 에너지를 만끽했으며, 그 후에 임원들이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멜번 지회

회장\_\_박성혜(기독 95)

### 김향림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 열어

멜번 지회는 6월 22일 김향림(외교 75) 동창 집에 모여 2015년 중반기 모임을 가졌다. 회원 모두 음식을 한 접시씩 가지고 와 정을 나누면서, 직접 그린 유화로 집을 장식한 김향림 동창의 솜씨에 감탄을 하였다. 이날 득남 이후 오랜만에 만난 정은재(실내디자



멜번 지회 2015년 중반기 모임

인 99) 동창과 처음 참석한 이혜영(기독 88) 동창을 환영하였으며, 드림하우스를 완공한 김상미(불문 98) 동창과 주택 가격이 폭등하여 어려운 상황에 집을 구입한 노지희(국악 93) 동창을 축하하였다.

## 밴쿠버 지회

회장\_\_김회연(가관 71)

### 신임 회장 선출

밴쿠버 지회는 2015년도 회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은 김회연(가관 71) 동창이다.

## 북가주 지회

회장\_\_제갈숙경(관현 79)

### 모교 방문의 추억과 종이접기 강습

6월 6일(토) 정오에 오클랜드의 고기타임에서 22명의 동창들이 정기모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여름 여행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5월 이화사랑 모교 방문 프로그램에서 극진한 대우와 사랑을 받고 돌아온 동창들로부터 모교 방문과 관련한 소식을 듣고, 찍어온 사진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월 7일(토) 정오에는 Hayward에 있는 '한국의



북가주 지회 바비큐 파티

집'에서 31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식당의 에어컨이 망가진 바람에 마치 사우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실내가 더워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매년 북가주 지회에서는 국제재단을 통해 모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4명의 재학생들로부터 온 감사편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편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 오히려 불편하니 다음부터는 한글로 써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8월 1일(토) 정오에 쿠퍼ти노에 있는 양승희(사학 73) 동창집에서 33명의 동창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정기모임을 했다.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 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해 상의했으며, 김영자(약학 57) 동창이 학교 기금모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지연(성악 91) 동창의 합창지도로 애틀랜타 총회에서 부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 노래 연습을 하였고 이어서 김경자(가정 59) 동창의 종이접기 공예 강습이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초등학생처럼 배우는 동창들과 함께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 샌디에고 지회

회장\_\_이광희(의직 73)

### 부부 동반 해변 피크닉

매년 여름 행사로 마련되는 '해변 피크닉'이 지난 7월 15일(수), 미숀 베이의 청색 가지보 아래에서 부부 동반으로 열렸다. 정기 모임에서 행하는 '도서와 의류 세일'은 다음 회로 미루고, 회장단이 준비해 온 샐러드, 캘리포니아 롤, 과일, 케이크로 소풍 기분을 한껏 낸 뒤, 푸른 바다를 낀 해변 산책길을 모두 함께 걸었다. 동문 소식, 한국 뉴스로 꽂 피우는



샌디에고 지회 해변 피크닉

동창들의 화제는 남가주의 넓은 대양처럼 끝없이 펼쳐졌다.

### 시드니 지회

회장\_김봉희(서양 74)

#### 박제향 동창 집에서 동창회 열어

8월 8일(토) 박제향(과교 76) 동창 집에서 18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지난 모임에서 예고했던 대로 권영규(생물 75) 동창이 일식요리 ‘비빔 초밥(일명 지라시 스시)’ 만드는 시범을 보여 맛있는 초밥과 그린피 샐러드를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몇 년 전 남편의 해외법인 주재근무를 따라 시드니에 거주하다 현재는 캐나다 법인으로 옮긴 윤성원(교공 87) 동창이 방문해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었다. 이화동산에서 4년을 함께한 이화동창은 세계 어디를 가든 한 동아리라는 것을 다시



시드니 지회 동창 모임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호주 시드니는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알리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연말 모임을 기대해 본다.

### 시애틀 지회

회장\_홍성희(약학 68)

#### 여름 야유회 개최

시애틀 지회 여름 야유회가 8월 1일(토) Kirkland에 있는 아름다운 O’Denny Park에서 열렸다. 동창들과 동창 가족 50여 명이 모여 양념 갈비와 꽁치 바비큐, 풍성한 야채로 맛있는 점심을 들판에 편안하게 즐기며 기념품까지 즐기며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시애틀 지회 여름 야유회

매년 야유회를 위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고문 김예자(신방 60 입학) 동창과 만사 제치고 참여해 땀 흘리며 고기를 구워준 이화의 사위들에게 감사드린다.

### 신시내티 지회

회장\_김영채(영문 59)

#### 작지만 알찬 겨자찌 같은 모임

신시내티 지회는 1년에 4회인 3, 5, 9, 11월 둘째



신시내티 지회 5월 모임

금요일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화가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금년에도 잊지 않고 동창회비를 서울 총동창회에 전달하고, '선배라면' 장학금도 국제재단에 보내고 있다. 2016년 이화창립 130주년을 위한 '백만불 모금운동'에도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신시내티 지회는 작지만 알찬 격자씨처럼 이화의 정신 진·선·미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살고 있다.

##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 긴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 모임을 시작

싱가포르 지회의 동창들은 지난 4월 최경희 총장 일행의 싱가포르 방문이라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새삼 이화인으로서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동창회는 행복한 여운을 뒤로하고 긴 여름 휴가철을 보냈다. 국제학교 학생들의 학부



싱가포르 지회 8월 모임

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지회의 특성상 6~8월은 공식적인 동창 모임이 없다.

8월 27일(목)에 센토사에 위치한 이태리 식당 il Lido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조혜숙(영문 89) 동창의 선창으로 삼페인 전배와 함께 새로운 하반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긴 여름 휴가를 건강히 보낸 모습으로 시종일관 웃음과 배려가 넘쳤다. 특히 이날은 싱가포르 지회의 최고 어른이자 후배들의 정신적 기둥인 신명숙(사학 61) 동창이 참석하고 정지은(정외 98) 동창의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 민호군이 참석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훈훈한 모임의 장이 되었다. 다음 달에 있을 추석 선물을 염두에 두고 참석 인원 수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예쁜 헤어핀을 고급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해 온 오선영(문정 00) 동창에게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름답고 자부심이 느껴졌다.

앞으로 골프회, 트래킹회와 같은 소규모 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라틴댄스회 등 몇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보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더욱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 번 모임부터는 동창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가져와서 돌려 읽기로 하였다.

## 애틀랜타 지회

회장\_\_김정희(약학 79)

###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

지난 6월, 숲속에서 무더위도 잊은 채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귀한 만남을 가졌다. 멀리 Alabama Mobile에서 온 김현순(생명 73) 동창 내외와 처음 참석한 이미정(심리 85) 동창에 대한 환영이 있었으며, 조성숙(가정 74) 동창 남편의 지도로 빙고 게임



애틀랜타 지회 숲속의 야유회



애틀랜타 지회 7월 모임

을 즐기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동창 남편들이 땀을 흘리며 구워준 고기, 옥수수, 고구마와 맛있는 찰밥, 야채 등으로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에는 남편들과의 혼성합창으로 <빈대떡 신사>를 불러 보았다. 놀라운 실력에 자취자도 감탄하였으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의 무대에 오를 것이 더욱 기대되었다.

7월 모임에서는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 까지 열릴 예정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일정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 총회 신청서를 배부하고, 금요일 탤런트쇼에는 <난타> 공연을 하기로 하고, 담당에 최인옥(건교 87) 동창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문화교실은 정호문(불문 62) 동창의 '한지부채 만들기' '사군자'로 결정하였고, 금,토 세미나 특강은 정소영(영문 62), 김영례(의학 57), 최인경(심리 89) 동창이, 기조연설은 유복렬(불어교육 85) 동창이, 안내·접수·차량·물품관리·기타 인원 배치는 이복희(섬예 75) 동창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7월에 생일

을 맞이한 정문자(의학 66), 김정숙(사학 65), 송문희(생명 72) 동창의 생일 축하가 있었다. 식사 후에는 김자영(약학 86) 동창의 '대상포진과 예방' 특강이 이어졌다.

8월에는 김숙자(체육 57) 동창의 아들이 경영하는 일식집 MICHIBISTRO&SUSH에서 맛있는 스시와 튀김 도시락, 월남국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은 조수현(수학 76)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였고, 8월 8일로 88세 생신을 맞이한 성정순(체육 49) 교수님을 축하하며 김숙자 동창이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8월 생일을 맞이한 장윤심(식영 70), 성정순, 이복희(섬예 75), 정정남(불문 61) 동창과 9월 생일인 정제니(영문 64) 동창, 7월 생일이었던 조수현 동창을 다같이 노래와 선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80세가 넘은 오은경(심리 54), 김숙자 동창과 성정순 교수님은 8학년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날 처음 참석한 김원희(조소 13) 동창은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와서 더욱 반가운 자리였다. 식사 후에는 김숙자 동창의 깜짝 특별쇼 밸리댄스 공연이 있었다.

## 울산 지회

회장\_\_최의숙(의학 77)

### 댄스 공연과 강습으로 활기찬 모임

5월 19일(화) 12시에 롯데호텔 폐난술라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울산 지회는 5월과 12월에 2번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5년을 단위로 각기 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총회에는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선후배 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무를 맡은 김애라 동창의 회무보고가 있었고, 작년 송년 모임에서 각 기별로 최경희



울산 지회 5월 정기총회

총장에게 약정한 모교 기숙사 건립후원 기금을 언제 까지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였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김매자(의학 77) 동창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밸리댄스 공연을 한 뒤 동창들에게 강습을 하였고, 안진희(관현 76) 동창은 이대 ALPS에서 배운 차차차 공연과 함께 강습을 해주었다. 즐거운 댄스 시간을 가지면서 활기찬 모임이 되었다. 다음 12월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임을 마쳤다.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의 성원 아래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클럽 모임 중 하나로 이 지역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클럽은 지난 6월 19일(금) ‘The Collaboration of Music&Art’라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김지애(서양 85) 동창과 함계선(피아노 79) 동창의 정성어린 준비와 열띤 강의로 기획된 이 모임을 통해, 음악과 미술 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6월 모임은 문화클럽 탄생 이래 최대 참석을 기록하며 많은 동창들의 갈채를 받았다.

7월에는 야외로 나가 도라지 농장을 방문하였다. 밭에서 딴 각종 신선한 채소와 더불어 푸짐한 바비큐 파티를 열어 선후배 사이에 돈독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DC지역 동창회는 무더운 여름, 동창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견문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모임들을 가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지완(문정 89)

###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모임

워싱턴DC 지역 동창회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도라지 농장을 방문한 워싱턴DC 지회

## 자카르타 지회

회장\_\_강혜경(간호 77)

### 밥퍼 봉사활동 다녀와

지난 1월 24일(토)에 모교 교수와 모교 동창들이 참여한 자선공연 <뷰티풀 마인드> 공연이 자카르타에서 있었다. 백경원(동양 90) 동창 자체도 함께 참여한 뜻깊은 공연이었다.

지난 4월 16일(목)에 밥퍼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닭튀김 600인분을 준비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왔다. 이정아(철학 90) 동창이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유남실(영문 83), 유지선(도예 83) 동창이 새로 입회하였다.



자카르타 지회 밥퍼 봉사활동



친선 골프대회를 주최한 토론토 지회

## 토론토 지회

회장 — 임영희(정외 77)

### 친선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2015년도 큰 행사 중의 하나로 대학 동문 대항 친선골프대회를 주최하였다. 지난 8월 22일(토) St. Andrew's Valley Golf Club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125명의 선수와 14명의 봉사임원들이 참가하였

다. 대회 사상 유래없이 많은 참가자와 축복해 주는 듯한 화창한 날씨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대회 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과연 이화여대”라는 등의 찬사를 하였는데, 많은 이의 관심과 협조로 잘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각 흘마다 스폰서를 해준 동창들을 비롯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도와준 선후배 동창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2015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려 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11월 30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으로 오십시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밤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 과, 학부 동창회에서 티켓을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총동창회 사무실 02-3277-3386~7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김수영(국문 88) 동창**

김수영 동창이 구청장으로 있는 양천구가 지난 8월 이대목동병원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천구는 지난 7월 열린 ‘2015 전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김수영 동창

**이병복(영문 48) 동창**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동창의 구술채록『우리가 이래서 사는가 보다』가 출간되어, 지난 8월 출간기념회가 열렸다. 출간기념회에는 박정자, 손숙, 강부자 등 연극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술채록의 출간을 축하하였다. 또한 이 동창은 지난 4월 이해랑연극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이병복 동창

**정효정(영문 68) 동창**

미주한국문인협회의 제20대 회장으로 정효정 동창이 취임하였다. 정 동창은 지난 1월 제20회 가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효정 동창

**오혜경(영문 72) 동창**

오혜경 동창이 지난 7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의 Women’s Leadership 포럼에서 ‘Servant Leadership in the IT Field’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장필화(영문 74)·김은실(영문 80) 동창**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장필화 동창(모교 여성학과 교수)은 한국 최초의 여성학 교수로 특히 ‘여성과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녔다. 김은실 동창(모교 여성학과 교수, 모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도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창립 실행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다.



장필화·김은실 동창

**김성미(영문 82)·이정애(경제 86)·박선영(경영 95) 동창**

포브스코리아가 2015년 코리아 파워우먼을 선정하였다. 유력 천장을 뚫은 경제계 파워우먼 25인에 김성미, 박선영, 이정애 세 명의 동창이 선정되었다. 김 성미(중소기업은행 부행장) 동창은 보수적인 은행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박선영(네이버 이사) 동창은 최근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V(브이)’의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정애(LG생활건강 전무) 동창은 LG 생활건강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으로 손꼽힌다.



김성미 동창



이정애 동창

**김희정(영문 83) 동창**

Federal Way 한인회장을 2년 연임한 김희정 동창이 임기를 마치고, 2015년 Federal Way 통합 한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수빈·지혜인(철학 09) 동창

이수빈, 지혜인 동창이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2015년 주제인 ‘공감과 배려–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에 관한 ‘2015 차세대 인문학자 논문 공모’에서 각각 1등과 3등상을 받았다.

이수빈 동창은 ‘정의와 공감 기반의 유가적 도덕 경제관 연구: 『대학』『차국평천하』장을 중심으로’로 1등상을, 지혜인 동창은 ‘배려윤리에 대한 비판 및 점검을 통한 배려윤리의 의미 고찰’로 3등상을 수상했다.

### 이양준(정외 70) 동창

사회과학대 동창회 고문인 이양준 동창이 모교 총장 자문위원(대외협력분야)으로 위촉되었다.



이양준 동창

### 서영교(정외 88) 동창

국회의원 서영교 동창이 ‘태완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었다. 서 동창이 지난 3월 발의한 태완이법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으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서 동창의 발의안과 법무부의 정부안을 병합해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서영교 동창

### 최인경(심리 89) 동창

최인경 동창이 지난 5월 16일(토)부터 7월 3일(금)까지 갤러리 Poem ‘88’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 권순우(화학 76) 동창

오랫동안 한글학교에서 수고하며 봉사를 하였던 권순우 동창이 무궁화 한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 안인모(피아노 97) 동창

피아니스트 안인모 동창이 지난 7월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텔링’ 콘서트를 열었다. 수익금 일부는 몽골 ‘쓰레기마을’ 울란출로트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건립 기금으로 기부한다. 안 동창은 모교와 추계예술대, 삼육대 강사로 재직 중이며 첼리스트 성승한과 ‘두오 에즈 웰(duo AS well)’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서주희(피아노 05) 동창

지난 8월 대구시민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서주희 동창의 20번째 독주회가 열렸다. 서 동창은 모교 음대를 거쳐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



서주희 동창

### 김사란(관현 00)·심보라(관현 05) 동창

김사란, 심보라미 동창 외 모교 관현악 선후배가 모여 만든 ‘카메라타 뮤지카 이화(Camerata Musica Ewha)’ 양상불이 지난 7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창단기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 문성희(작곡 80) 동창

6월 26일(금)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성결대 교수 문성희 동창이 ‘계절의 메타포’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문성희 동창

### 박은혜(작곡 87) 동창

모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은혜 동창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음악극 단체 ‘하다르 컨템포러리 뮤직 시어터’의 주관으로 창작곡 발표회를 가졌다.



박은혜 동창

### 곽은아(한음 85) 동창

모교 한국음악과 교수 곽은아 동창이 학생처 부처장 겸 학생상담센터 소장 겸 양성평등센터 소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았다. 또한 9월 16일(수) ‘혁신 이화 시리즈 특강—이화의 학자들: 학문, 미래를 말하다’에서 강연했다.



곽은아 동창

### 채수정(한음 94) 동창

2015년 2학기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판소리)로 발령받았다.



채수정 동창

### 전주영(종음 93) 동창

6월 28일(일) 워싱턴DC에서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오르간 독주회를, 7월 23일(목)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피아노, 오르간 듀오 연주회를 하였다.



전주영 동창

### 조은미(무용 78) 동창

모교 교수 조은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현대무용단—팀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획무대인 ‘팀 35주년 기념 작품시리즈Ⅳ 가을신작무대’를 9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모교 삼성홀에서 개최하였다.



조은미 동창

### 김영희(무용 80) 동창

모교 무용과 교수이자 김영희무트댄스 예술감독인 김영희 동창이 지난 6월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015 김영희 무



김영희 동창

트댄스 정기공연 살풀이—돌아서서’를 공연하였다.

### 박은영(무용 83) 동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은영 동창이 악학궤범 내용을 풀어 복원한 궁중무용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을 사단법인 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가 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잔치 여민마당’에서 재현하였다.



박은영 동창

### 오숙환(동양 75) 동창

지난 8월 개최된 무주 최북미술관의 ‘수목에 물들다’ 기획전에 모교 한국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숙환 동창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오숙환 동창

### 강성은(동양 96)·허윤희(서양 91) 동창

서울 종로구 갤러리룩스에서 열린 ‘실패하지 않는 그림: 드로잉’ 전에 작품을 전시했다.

### 최용순(서양 77) 동창

홍익민화연구소 소장인 최용순 동창이 한국민화협회 LA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11월 11일엔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초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전시회를 연다.

### 김지선(서양 86) 동창

6월 3일(수)부터 9일(화)까지 인사동 장은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지선 동창

### 남여주(서양 86) 동창

6월 3일(수)부터 8일(월)까지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윤경미(서양 87) 동창

8월 25일(화)부터 9월 5일(토)까지 용산 파비욘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오경아(서양 91) 동창

8월 27일(목)부터 9월 6일(일)까지 소격동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노승복(서양 93) 동창

7월 24일(금)부터 8월 8일(토)까지 성북동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김명숙(조소 74) 동창

조각미술관 바우자움을 개관하였고, 미술관은 강원도 고성의 3000평 부지에 전시관과 카페동, 야외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명숙 동창

### 박일순(조소 74)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일순 동창이 9월 1일(화)부터 9월 19일(토)까지 이화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심인자(조소 74) 동창

6월 3일(수)부터 7월 19일(일)까지 닥터박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신은숙(조소 79) 동창

일본 오타와라 시 문화예술원에서 9월 12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 홍현애(조소 86) 동창

7월 25일(토)부터 8월 30일(목) 까지 아나하임 시의 Muzeo Art Museum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홍현애 동창

### 김선영(조소 87) 동창

7월 1일(수)부터 29일(수)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의 Ray Gall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장선아(조소 90) 동창

5월 23일(토)부터 6월 10일(수)까지 갤러리 LVS project.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박지희(조소 08) 동창

2015년 대안공간 루프 신진작가로 선정된 박지희 동창이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루프에서 ‘직사각형은 언제 평행사변형이 될까?’ 개인전을 열었다. 박 동창은 모교와 영국 슬레이드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2010년부터 국내외 다양한 미술공간에서의 그룹전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한향림(도예 79) 동창

한향림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한향림옹기박물관과 모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은 지난 6월 전시 전반 및 박물관 업무실습을 통한 도자예술 분야의 커리어 균접성 향상을 위해 큐레이팅 인턴십 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영실(도예 83)·김민아(도예 14) 동창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라믹 창작센터에서 지난 7월 20일 (월)부터 5주간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온 6명의 멘토 도예가와 15명의 젊은 멘티 도예가가 도자를 매개로 교류, 협력하여 상이한 두 문화를 공유, 배양하는 멘토링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한영실 동창과 김민아 동창은 이번 도자 워크샵에서 멘토와 멘티, 작가와 작가의 관계로 새



한영실 동창



김민아 동창

로 만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남연숙(도예 86) 동창

남연숙 동창은 지난 7월에 ‘전통 차모로 풍습 유지, 보호’ 개인전에서 26작품을 선보였으며 그 중 13작품은 2016년 달력을 만들어 괌 문화 예술청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8월에는 아가나 쇼핑센터 하가나 괌에서 괌 아트 Group 전시회로 ‘초상화’ 전을 열었으며, St.Dominic’s 양로원에서 ‘전통 차모로 풍습 유지, 보호’ 개인전을 가졌다.



남연숙 동창

### 김미경(도예 87) 동창

지난 6월 제주 심현갤러리에서 개인전 ‘아름다운 공예: 손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다’ 전을 열었다. 김 동창은 현재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민세원(도예 89)·이인숙(도예 93) 동창

민세원, 이인숙 동창이 핀란드에서 개최된 ‘Arctic Clay Symposium’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Porcelain&Paper Clay’라는 주제로 7월 27일(월)부터 8월 23일(목)까지 개최되었다.

### 오경아·신경원(이상 영디 14) 동창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 2015, 애니메이션어워드 부문에서 오경아 동창이 우수상, 신경원 동창이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화 동창

### 최병화(체육 66) 동창

187개국을 여행한 배낭여행가 최병화 동창이 계간 《다사올문화》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

인으로 등단하였다.

### 김지현(체육 12) 동창

지난 6월 미사리경정공원에서 열린 ‘미래 경정여왕전’에서 김지현 동창이 챔피언에 오르며 차세대 경정퀸 자리를 예약했다.



김지현 동창

### 박승희(초교 81) 동창

박승희 동창이 소장으로 있는 모교 발달장애아동센터가 지난 4월 30일(목) 서대문구청과 ‘어린이집 아동의 발달 선별 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모교 발달장애아동센터와 서대문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발달 선별검사 사업의 시행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협력 관계 확장을 통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희 동창

### 최윤아(교공 91) 동창

최윤아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넥슨컴퓨터박물관이 지난 7월 22일(수) 제주도교육청과 IT교육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최윤아 동창

### 김은숙(특교 88) 동창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구관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으로 9월 1일(화) 승진 발령을 받았다.



김은숙 동창

### 전혜경(과교 80) 동창

전혜경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은 최근 식용 곤충을 이용하여 일반인 및 환자음식을 개발하였다. 곤충의 식품화는 농업과학원이 201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혜경 동창

### 양근향(과교 86) 동창

양근향 동창이 모교 총장글로벌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최경희 총장은 양 동창의 한미교육 및 대학교류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임기 중 모교 세계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주하(과교 98) 동창

전 MBC 앵커 김주하 동창이 종합 편성 채널 MBN으로 새 등지를 틀었다. 김 동창은 1997년 MBC에 입사한 이후 MBC 간판 앵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주말 오후 '뉴스데스크'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지상파 첫 단독 여성 앵커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김주하 동창

### 최재은(법학 80) 동창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재은 동창이 최근 재미한국부인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최재은 동창

### 손정(경영 89) 동창

홍콩 슈팅갤러리 공동대표이자 CF 감독인 손정 동창이 코즈매틱 브랜드 슈퍼페이스를 론칭하였다. 슈퍼페이스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손정 동창

### 하은희(의학 87) 동창

도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하은희 동창의 연구팀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국가 사업의 지원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에



하은희 동창

따라 연구팀은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출생 코호트 조사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22년 간 환경 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하 동창은 2015년 국제수은학회 공동위원장으로 역임하는 등 어린이환경보건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은 지난 7월 31일(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계모유수유주간(WBW)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김 동창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의사로는 유일하게 '모유수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주 동창

### 문혜성(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 문혜성 동창이 8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국내외 싱글 사이트 로봇 수술 전문의들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정경아(45회), 이사라(48회) 동창도 함께 참여했다.

### 박은애(의학 88)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기회조정실장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은애 동창을 임명하였다. 박 동창은 극소자체중 출생아 지원사업인 '이화 도담도담센터'의 운영 등 국내 신생아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

### 임수미(의학 93)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에 영상의학과 교수 임수미 동창이 임명되었다.

### 이남준(의학 96) 동창

7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21차 국제간이식학회에서 ‘폴리나리 세션 영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이남준 동창

### 이경림(약학 81) 동창

이경림 동창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지는 자연과학의 전분야를 포괄하여 발간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 동창은 모교 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병태생리학 및 약물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림 동창

### 이희준(약학 92) 동창

극작가이자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희준 동창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용극 <바실라>를 오픈 런 공연 중이다. 또한 이 동창 극본의 뮤지컬 <공동경비구역JSA>가 DCF대명문화공장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9월 18일(금)부터 12월 6일(일)까지 앵콜공연한다.



이희준 동창

### 신성숙(제약 76) 동창

신성숙 모교 약대 전국개국동문회 회장은 지난 8월 23일(일) 서울 서초구 JW타워에서 동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임원 및 지역대표자 연수

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원효정(가정 63) 동창

샌디에고 Art Institute에서 활약하는 원효정 동창은 수차례의 개인전과 제네바 Building Europe Show 등 그룹 전시회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델마아트센터 주최에서 1등상을 획득했다.

### 박현옥(의직 78) 동창

지난 6월 한국경제신문사 1층 한 경갤러리에서 박현옥 동창이 개인전을 열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정의 행복한 순간을 꽃으로 형상화하는 박 동창은 ‘꽃의 화가’로 불리고 있다.



박현옥 동창

### 최현정(교대원 09) 동창

모교에서 음악치료교육학을 전공한 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를 하던 최현정 동창이 지난 7월 1일(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신임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 오정희·이귀영(정책과학대

#### 학원 15) 동창

2015년 기록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오정희, 이귀영 동창이 최종합격하여 중앙부처 6급 기록연구사로 임용되었다.



오정희 동창



이귀영 동창

**빼앗긴 사람들: 아시아 여성과 개발**

장필화(영문 74)·노지은(대학원 95)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우르와시 부딸리아 편저 /  
장필화, 노지은 엮음 / 산지니

- 아시아 각국의 여성학자와 운동  
가들이 아시아 개발 그 이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국의 여성과 아이들이 개발  
한가운데서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희  
생당하는지를 사례연구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기획하고, 인  
도의 첫 페미니즘 출판사 설립자인 우르와시 부딸리아가  
편저자로 참여하였다.

**도올 만화 논어** 이보현(철학 95)

도올 역주 / 보현 만화 / 통나무

- 만화가(필명 보현)로 활동 중인  
이보현 동창이 도올 김용옥의 『도올한글  
역주』(전3권)를 만화로 옮긴 『도올만화  
논어』(전5권.통나무)를 펴냈다. 보다 많  
은 사람들이 논어를 접할 수 있게 만화  
로 옮겨보고 싶었던 이 동창은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2011년 작업을 시작하여 5년여 동안 작업에 매진하였  
다. 만화에는 도올의 캐릭터가 직접 등장해 논어의 각 구  
절을 해설하고, 공자와 제자들은 동글동글하고 따뜻한 캐  
릭터로 재탄생했다.



마셜 매클루언 저음. 박정순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이고 독  
창적인 사상가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의  
첫 번째 저서가 번역 출간되었다. 1951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1950년대 미국의  
광고, 만화, 영화 포스터, 신문 지면의  
이미지 등을 통해 대중문화의 민낯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다.



차희원 저음 / 이대 출판부

- 모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차희원 동창이 PR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기업 명성을  
재조명한 연구서를 펴냈다. 특히 이 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하  
는지에 관해 통합적 명성 관리 커뮤니케이션 자본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박은영 저음 / 한국문화사

- 박은영 동창은 '중앙공무원교육  
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영어 학습법을 특  
강하던 내용과 영어 교사들에게 특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  
해 영어를 손쉽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 영어학습'을 발간하였다. 《굿모닝팝스》 칼  
럼으로도 일부 내용이 연재되었으며, QR코드를 일일이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이현정(대학원 96)·한송이(대학원 11)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 이소정·이현정·한송이 저음 /  
이대 출판부

-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에 참가했던 여성  
NGO 활동가 103인의 삶과 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 운동  
가들의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입 동창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5년 8월 28일(금)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신입 동창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학사학위 수여자 명단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전공(문학사 49명)

구예경 김경남 김명수 김보람 김빈나 김유진 김윤지 김은영  
김주희 김혜린 김희령 남의정 문지은 박소영 박신영 박형은  
변보람 안세민 안수미 안유진 안인영 안정철 양윤정 양혜진  
여지연 오보람 유지연 윤샘 이동주 이민하 이서진 이수련  
이아연 이지연 이향미 정고운 조민지 조희원 최나윤 최명경  
최세연 최수현 CHOBTHAM PACHARAPORN LI MAN SUN XIN XUMINGYUE  
김보경 이예연 차민영

#### 중어중문학전공(문학사 43명)

강희영 고경나 공해민 권도연 김민주 김민지 김보정 김슬기  
김온유 김은영 김지은 김진선 김태희 김희진 맹승은 민선빈  
박혜진 박희영 성가연 신민조 안서영 안윤정 양다예 윤유라  
윤지윤 이다혜 이서연 이서영 이윤주 이지민 이지현 이지혜  
이태리 전희애 정석정 정지원 조아라 조영경 최예은 한세라  
한진경 이수민 이채원

#### 영어영문학전공(문학사 58명)

강슬기 고다영 고주연 권탐지 김나정 김선경 김성은 김소연  
김소연 김여민 김유경 김유민 김윤경 김혜민 김효연 나아람  
류가은 민혜주 박민지 박민형 박부영 박소현 박은경 박한솔  
배소영 성수연 신가람 신지은 신희선 양현선 어경 유수림  
유영현 윤지혜 이민지 이보미 이소윤 이애라 이어진 이윤재  
이은빈 이인선 이현주 장윤희 전크리스티나 정은하 조현주  
조현주 조혜림 한재연 Nguyen Thi Bich Khue 김유진 문서영  
안인경 안인희 이경은 이하나 한수빈

#### 불어불문학전공(문학사 19명)

강현주 구민지 김미진 김성연 김진아 남지원 박선영 박슬기  
성은지 양영아 윤아영 윤지수 이연재 정소윤 정형지 조수현  
황서진 이신비 정민지

#### 독어독문학전공(문학사 12명)

김가온 김수진 김태희 서민희 심재은 이수민 이승은 이신비  
정유나 제은솔 황예랑 이다혜

#### 사학전공(문학사 16명)

김경은 김보현 김윤 김정아 박승희 박윤미 방준영 유선경  
유선영 이선형 이지현 임유현 정우진 흥주은 김가연 나유진

#### 철학전공(문학사 15명)

김보경 배지예 안인희 양지연 옥진희 윤혜성 이태현 장예원  
전유채 김태희 남수정 이다혜 전청림 하정현 홍신혜

#### 기독교학전공(문학사 7명)

김민희 김예영 김윤정 박서연 안가람 조소정 양수빈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전공(정치학사 39명)

김다운 김연실 김영은 김예지 김윤진 김지은 김혜지 남소희  
문수연 박근화 박상아 박의신 신승연 신이지 안수현  
오셀레스페 윤선애 윤이나 이수현 이지수 장수영 전수희  
전진영 한지민 흥아름 Alenga Jennifer Wintima 김보라 김선민  
김소연 김슬기 김정아 도호정 안가람 안세민 안윤정 이한빛  
장예지 조수현 한진경

#### 행정학전공(행정학사 24명)

김성경 김소원 김이슬 김희은 박소미 송나리 양정화 유미현  
윤정은 이다래 이동하 이영광 이재인 임다영 전겨례 조연주  
추영민 김가람 박단비 신수윤 안효령 유성미 유수림 이수진

#### 경제학전공(경제학사 106명)

권소진 김세은 김수현 김주은 김지수 김지양 김효상 김희진  
남미라 노은지 문한희 박다영 박단비 박수현 백록담 송지원  
양소정 윤소연 이다은 이민주 이수진 이주현 이채원 이하라  
이한슬 이혜은 이효정 장민영 정아람 조해정 최은정 최형윤  
하선영 황혜민 LIU KAILIN LU QI 강현주 고경나 공해민 곽송이  
권도연 김경은 김나현 김다혜 김미림 김미림 김보영 김성미  
김소은 김소진 김수정 김예지 김옥진 김윤진 김은지 김이슬  
김현주 김혜민 류수림 문서영 박금비 박은지 박지은 박한솔  
박현경 박희영 방민지 변보람 성지은 손지민 송예나 송지혜  
신신혜 오보람 유혜진 윤난경 이다래 이선경 이세진 이연수  
이지선 이지현 이혜인 이희원 임민경 임수현 임유현  
장유숙 장한이 장혜림 전수희 전진영 전희애 정유미 정현주  
조소정 조우성 조은진 조현주 조혜인 최선영 최수민 추영민  
허지현 황예랑

#### 문헌정보학전공(문학사 12명)

안현민 오정주 이정민 이혜인 정민영 정승연 천다혜 최선영  
최형욱 김보현 박소영 정우진

#### 사회학전공(문학사 21명)

김다예 김주량 김태희 김혜유 박선영 박현경 신은지 신재은  
오로라 우경원 이승미 조샛별 최다희 홍신혜 김기은 김유경  
옥진희 정승연 흥보은 홍소진 황가형

### **심리학전공(문학사 78명)**

김문경 김민준 김수빈 김수진 김유진 맹경미 문정희 박도담 윤난경 이해선 장한이 전소진 주윤경 하인혜 하정현 한나현 허선영 Huang QiSi JIN ZHENLING Nelson Amanda Elizabeth 경혜진 곽다은 김고운 김도윤 김민정 김민희 김세연 김예영 김유민 김윤정 김은영 김은혜 김지선 김지은 김태희 김효연 남미라 남소희 남혜원 류가은 문그림 민혜민 박혜민 서세미 송다희 신윤지 여예정 오경선 오로라 우경원 원서현 유혜림 윤소연 윤유라 윤혜성 이가빈 이나래 이수윤 이승미 이아령 이아연 이주현 이주화 이지영 이지현 이하늘 이형윤 임다훤 정민영 정예랑 정지원 정지은 주예지 최다희 한가형 한주경 혼정선 흥지연

### **소비자학전공(문학사 29명)**

고지수 구다은 김가람 남혜원 문예진 박지윤 변민영 신윤지 이윤희 이지현 정예랑 진한결 최수민 한연경 황나영 김명수 김수지 김효상 박슬기 서민희 신송재 안인영 유선경 이민영 이지민 이현아 정효영 조은진 최은정

### **사회복지학전공(문학사 1명)**

박은영

### **언론정보학전공(문학사 20명)**

고해강 김유경 김지은 남수정 문서영 성지은 윤소연 이지수 이한빛 장예지 전수연 전원 진세현 안유진 유지연 이동주 이동하 이예진 장아라 최나윤

### **광고·홍보학전공(문학사 25명)**

민혜민 안지영 안혜지 이수윤 이해원 정은선 하지원 허찬미 황희진 chen tzul ing LIU FANG WU MING NI 김윤아 김현아 김희령 노은지 박서연 배소영 백송이 신지은 여지연 윤소연 이지수 임주연 한나현

### **방송·영상학전공(문학사 16명)**

김솜 김현아 백송이 안예담 이은경 임수현 조유영 최수정 한송이 홍소진 심재은 안혜지 이민하 이태림 장수빈 천다혜

## **자연과학대학**

### **수학전공(이학사 17명)**

장현선 김나현 김민지 김수진 김유나 김하은 김한나 김현희 박단비 박민정 박정아 박지은 방민지 송지혜 조혜인 최진영 이초은

### **통계학전공(이학사 22명)**

강은비 고현아 김미림 김민정 김보영 김성미 김현주 박은지 박하정 손지민 송다희 신신혜 안수진 윤희정 전지혜 최문기 최민진 최지안 황경선 김수진 박정아 유해린

### **물리학전공(이학사 5명)**

이수아 정세원 정해선 조혜민 주경혜

### **화학·나노과학전공(이학사 16명)**

권남희 기은별 김상희 김하나 박민해 박은숙 손이슬 송지현

양희림 이선경 이예정 정혜승 조경진 최은진 한지원 이하늘

### **생명과학전공(이학사 23명)**

김정화 김지혜 김하늘 박진희 박희재 송수정 유예은 유해린 이다솜 이주화 이하늘 이형윤 임소영 전희진 조예림 채진선 하소담 한규영 함민지 흥지연 황지원 황지은 박은숙

##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전공(공학사 25명)**

강명진 김고은 김서현 김수진 김윤희 김은지 김주령 김지원 박나래 백송이 오경희 오수연 원혜진 유민정 윤지운 이지은 이지현 전해인 정솔님 정주연 최은혜 최현미 한성애 Mohammad Baqer Zakya 김민지

### **전자공학전공(공학사 16명)**

구지혜 김경은 김윤지 김주희 문지연 박정은 박지영 백재연 이다연 이은선 정선희 정진영 정하영 한필모 함수민 황여준

### **건축학전공(건축학사 12명)**

김윤희 김은영 김은진 도지원 신지혜 왕주희 이영은 이지수 이하진 정민지 채민영 황지애

### **건축공학전공(공학사 10명)**

김규리 김두름 김민정 김선요 김윤지 박혜연 손지숙 송현지 송화영 오재영

### **환경공학전공(공학사 17명)**

권혜진 김고은 김리하 김새리 김새봄 김선희 김은지 박선미 박지은 신소영 신수란 안소현 유지호 이승연 이아름 정단비 정혜원

### **식품공학전공(공학사 13명)**

곽명진 김성미 김효진 노경이 손은영 송민정 유나라 이미현 이정현 장진현 전은지 조혜림 최수기

## **음악대학**

### **건반악기전공(음악학사 14명)**

김미경 김수진 김은혜 김지은 나유진 남소정 유수미 이민희 이슬기 이영혜 임지윤 조수지 한주연 노소은

### **관현악전공(음악학사 9명)**

김예린 김현진 박혜진 신윤정 신진실 정혜민 진은애 흥지원 홍지혜

### **성악전공(음악학사 10명)**

강현선 김현진 박윤정 신주연 유예인 윤이정 은신실 하여정 하주림 Nelson Amanda Elizabeth

### **작곡전공(음악학사 6명)**

금민채 김소영 노소은 유재영 정승원 현정선

### **한국음악전공(음악학사 10명)**

김다빈 김민 김은비 김해람 박혜민 오수진 이아령 임가람  
전하영 황주현

### **무용과(무용학사 4명)**

김다예 민희정 이노아 이다혜

### **조형예술대학**

#### **동양화전공(미술학사 16명)**

강민주 김민지 김수영 김수진 김지혜 김현주 김혜원 박소현  
백송이 유진영 이성은 이예나 이지은 이태림 조혜륜 한보연

#### **서양화전공(미술학사 14명)**

강유정 김온정 김지선 김지원 배보미 양혜인 오유진 이소영  
이유진 임유진 장수빈 조소정 한유진 김지윤

#### **조소전공(미술학사 11명)**

김서인 김소현 김주연 박신혜 박정윤 박정향 성혜원 이다래  
이보름 이지현 임소영

#### **섬유예술전공(미술학사 21명)**

김문선 김민영 김연수 김예슬 김지민 김지수 김지윤 박성경  
박수지 백소연 서은정 손지현 손혜정 송민희 유희선 이동해  
이지은 이지향 임수연 정종혜 조하윤

#### **도자예술전공(미술학사 14명)**

구한울 김소미 김영빈 김지나 김희지 박민희 손희진 신재경  
신혜림 원성연 이기쁜 이혜라 전청림 허진

#### **공간디자인전공(미술학사 7명)**

김재은 김한솔 김혜진 박수지 한나혜 한은지 황성희

#### **시각디자인전공(미술학사 17명)**

김윤아 김효정 문혜원 박신우 손정현 신지혜 안한나 이예연  
이주은 정선민 조효원 최수인 신재경 오유진 유희선 이기쁜  
임유진

#### **산업디자인전공(미술학사 16명)**

김다은 김연주 남지은 백민정 송지현 이가영 이재현 이지영  
이채린 이하늘 이현주 이학승 최소라 흥수진 황다예 황선혜

#### **패션디자인전공(미술학사 9명)**

권채리 김경민 김혜은 박가람 이다경 지희영 최예린 한정현  
정석정

#### **영상디자인전공(미술학사 9명)**

강다혜 박소연 신별 오현지 윤새나 이아단 장혜윤 차민영  
백송이

#### **의류학과(의류학사 33명)**

공세린 김기선 김기은 김나연 김단비 김민정 김민지 김해리  
남궁민 류수립 변희진 안혜인 유선정 유소연 이지현 이현주  
임주연 정민지 조이진 한세희 한소현 한주은 허혜빈 흥보은

홍석영 Jin Xianghua PIAO LILAN 구민지 김예슬 김지수 박성경  
이향미 정종혜

### **시각정보디자인전공(미술학사 1명)**

조슬기

### **사범대학**

#### **교육학과(문학사 7명)**

김건아 김아리 문그림 오상아 윤새얀 이예진 한수빈

#### **유아교육과(문학사 8명)**

심예슬 안효령 오수지 이다혜 이지영 최윤영 김정화 박윤아

#### **초등교육과(문학사 5명)**

구세림 김고운 유소형 김건아 조정은

#### **교육공학과(문학사 22명)**

권누리 김문정 김문진 김소미 김수민 김지수 김하경 김혜준  
박세련 박지윤 박채린 박혜민 서세미 손은지 심성원 양지혜  
유지현 이정현 정지은 한가형 한주경 황소영

#### **특수교육과(문학사 8명)**

(유아특수교육전공) 김정화 김푸름 박윤아

(초등특수교육전공) 장재실

(중등특수교육전공) 민지원 여슬기 정혜림 오수지

#### **특수교육과(문학사 1명)**

김보미

#### **영어교육과(문학사 13명)**

고유진 곽내영 곽다은 서용원 신상지 유미진 이우정 장유숙  
조윤경 최이진 김수민 심성원 한수빈

#### **사회생활학과(문학사 32명)**

(역사교육전공) 김성연 김수현 김예슬 변수진 위상희 유지인  
김나언 정혜림

(지리교육전공) 김나언 김민서 김인화 김혜연 노승주 박민지  
박성빈 박소민 이정민 조정은

(일반사회교육전공) 곽송이 김소정 김신엽 박제민 서민희 오은성  
오은지 유하나 이연수 이유리 이희원 조나래 조은진 황가형

#### **사회과교육과(문학사 1명)**

(역사교육전공) 성인희

#### **국어교육과(문학사 7명)**

고민선 김보라 김주연 박진희 주예지 한선희 김소정

#### **과학교육과(이학사 25명)**

(물리교육전공) 김영은 이초은 전은혜 최일아 함유라 허정윤  
(화학교육전공) 최아현

(생물교육전공) 강다솜 박영희 박진서 손예진 손지연 임다훤  
한지영

(지구과학교육전공) 강민경 김미림 김송이

### **수학교육과(이학사 8명)**

김지현 남궁별 박현민 이주리 조윤주 지인선 최수진 황소영

### **경영대학**

#### **경영학전공(경영학사 176명)**

가아람 강어진 경혜진 곽민주 권희수 기유진 김다혜 김도윤  
 김세연 김세연 김소은 김소진 김수경 김수정 김수진 김연정  
 김예원 김예지 김옥진 김윤해 김지선 김현리 노현정 노형민  
 단지현 문서영 박우정 박정윤 서민지 송재훈 신수윤 신지현  
 안인경 여예정 염수현 유혜진 윤서림 이나래 이샛별 이세진  
 이수민 이승연 이영은 이유진 이지선 이지연 이지윤 이지현  
 이채원 이하나 이혜수 임민경 장혜림 정다영 정다예 정유미  
 정은영 정현주 정혜은 조나원 조아라 조우성 조은진 최수영  
 한다솜 한지연 허정봉 BAITING LI MENG LU 강민주 강현선  
 고다영 고주연 고현아 김나연 김나정 김미진 김민주 김민지  
 김보미 김보연 김보정 김선경 김성은 김세은 김여민 김영아  
 김유나 김윤지 김은진 김인화 김지수 김지혜 김태희 김해리  
 김현희 김혜민 김혜진 김희은 김희진 나아람 남궁민 남정민  
 남지원 노승주 맹승은 문예진 민혜주 박근영 박선영 박소연  
 박신영 박제민 박채린 박하정 박혜진 박효언 백록담 서용원  
 성가연 성수연 손은지 송나리 신가람 신민조 신예나 신윤정  
 신은지 안인희 안혜인 양소정 양윤정 위상희 유미진 유선정  
 유소연 윤선애 윤지수 윤지윤 이다은 이선희 이수련 이애라  
 이영광 이우정 이윤재 이은경 이지수 이지현 이태리 이현주  
 임수진 장예원 전경희 전크리스티나 정고운 정민하 정소윤  
 정은하 제은솔 조나래 조아라 최민진 최세연 최수정 최수현  
 최예은 최형윤 하선영 하지원 한소현 한송이 한연경 허선영  
 허혜빈 황희진

#### **국제사무학과(문학사 32명)**

김가원 김미림 김희연 남정민 박금비 박효언 유혜림 이민영  
 이현아 임수진 전경희 정민하 최수린 하지원 구다은 권누리  
 김수경 김연정 김지은 문수연 박민해 박소현 안서영 이수현  
 이영혜 이정민 이지연 정유나 최형욱 한지민 흥아름  
 CHOBTHAM PACHARAPORN

### **건강과학대학**

#### **간호과학전공(간호학사 1명)**

김민지

#### **체육과학전공(체육학사 15명)**

강미숙 김가연 김경선 김수지 김은비 신송재 오경선 유성미  
 이소민 이현아 정효영 조서영 흥미영 황지은 태솔

#### **체육과학과(체육학사 4명)**

박소연 임금정 장아라 정은영

#### **식품영양학과(이학사 16명)**

김누리 김석영 김선민 김선우 남화현 박성은 박현민 심민지  
 임수민 정예슬 최은지 허보영 허윤진 허지현 황영림  
 ZHU MENG MENG

### **보건관리학과(보건학사 6명)**

김나성 박근영 박선영 이가빈 전승희 최혜린

### **스크랜튼대학**

#### **자기설계(스크랜튼-디지털인문학)전공(문학사 1명)**

어경

#### **자기설계(스크랜튼-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문학사 5명)**

이민주 이연재 이인선 이한슬 조현주

#### **자기설계(스크랜튼-과학과생명)전공(이학사 1명)**

박희재

#### **자기설계(스크랜튼-인체와건강)전공(이학사 1명)**

송지현

### **국제학전공(문학사 37명)**

권도연 권민정 김다예 김마승 김민선 김보라 김보연 김영아  
 김지혜 김현기 도호정 문혜진 박수민 성미화 손라영 송예나  
 신예나 신예나 양수빈 우지현 원서현 유미종 유채린 이경은  
 이예은 이유현 이은누리 이주진 이초롱 이현지 정다혜 태솔  
 허혜진 김온정 김유경 박은경 이태현

### **예술대학**

#### **조소전공(미술학사 1명)**

김여진

#### **섬유예술전공(미술학사 1명)**

이소민

#### **영상디자인전공(미술학사 1명)**

이아란

#### **무용과(무용학사 1명)**

한나래

### **법과대학**

#### **법학과(법학사 7명)**

김인교 김희성 변지희 신재원 우민경 장아영 정윤지

### **연계전공**

#### **동아시아학전공(문학사 8명)**

곽민주 김정아 김진선 신지현 양다예 유선영 이서연 이채원

#### **유럽학전공(문학사 2명)**

전수연 한지연

#### **미술사학전공(문학사 40명)**

가아람 강슬기 강유정 고해강 김경남 김나연 김다운 김단비  
 김민서 김민지 김솜 김여진 김영빈 김예슬 김현주 김혜원  
 남궁민 박근화 박민희 박소현 박윤미 배보미 변희진 손희진

송재훈 신혜림 유진영 이민지 이성은 이소윤 이지향 이지현  
이현주 이혜라 전소진 전유채 정은선 조하윤 한유진 흥석영

**여성학전공(문학사 2명)**  
박부영 장윤희

**멀티미디어학전공(문학사 7명)**  
김지수 박세련 서민휘 손정현 양지혜 정선민 정은영

**전문영어전공(문학사 5명)**  
김주은 오정주 이현지 전원 조유영

**북한학전공(문학사 5명)**  
김문선 김예지 김지양 문지은 변지희

**한국학전공(문학사 1명)**  
박진희

**인지과학전공(이학사 2명)**  
안수미 채진선

**정보보호학전공(이학사 1명)**  
최진영

**과학기술경영전공(문학사 2명)**  
전지혜 최은혜

**재무경제전공(경제학사 1명)**  
박수현

**공통사회전공(문학사 3명)**  
김인화 오은지 유하나

**공통과학전공(이학사 17명)**  
강다솜 강민경 김미림 김송이 김영은 박영희 박진서 손예진  
손지연 이초은 임다훤 전은혜 최아현 최일아 한지영 함유라  
허정윤

**아동학전공(문학사 10명)**  
김수영 김수진 김유진 문정희 윤서림 이서진 임금정 정다예  
조혜민 하인혜

**일본언어문화전공(문학사 4명)**  
박희영 오현지 윤이나 진세현

**사회복지학전공(문학사 2명)**  
강미숙 김세은

**계산과학전공(이학사 3명)**  
김한나 박지은 이아름

**융합디자인전공(미술학사 12명)**  
김연주 김현리 남지은 박지윤 변민영 송지현 이가영 이재현  
이희승 최소라 황다예 황선혜

## 석사학위 수여자 명단

### 대학원(381명)

####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박혜성 송민하 심유경 이진송 정민영 진소희  
jia zhuo Siu Pui Sang

**중어중문학과** 강현지

**영어영문학과** 김나련 김유진 김정영 김하야나 남궁윤 배유진  
양혜란 오미란 오원경 유선명

**기독교학과** 김지혜 배조이 백인하

**철학과** 전혜리

**사학과** 김보람 이장미 장수영

**미술사학과** 곽세원 김기혜 서지민 송고운 유지원 윤도영  
윤하나 정지희 정진영 조은경 주윤아 흥유리

**소비자학과** 권아정 김정현 유명수 이지연 임영 HUANG BAOXIAN

**여성학과** 김성애 김혜영 엄진 원혜정 한빛나

**교육학과** 김소리 박경숙 정예나 최훈원 한지희 GAO SHAN  
KOMURO YUKIKO LIU XUNXI

**유아교육학과** 김보미 혀가영 AYE PHYOE PWINT

**교육공학과** 김희준 신의경

**특수교육학과** 김혜선 윤신명 이정은 최혜리

**영어교육학과** 김수진 유현지 유혜주 이세림 정현정  
사회과교육학과 김예지

**국제사무학과** 강우림 김보배 김하나 유지혜 장영자 Enkhtaiwan  
Enkhchimeg SENGEDORJ KHUVSGULDALAI

**수학교육학과** 하성은

####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김민정 노도희 박민지 안정은 최유나

####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신현섭 유주희 주민지

####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송지민 이혜연 장은진 ZHUMENGYING

####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김다은 노금선 윤진아 이유경 이희준 최보윤

####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고명지 마지연 우민희 이현영 한누리 CHEN RONG  
Nguyen Thi Van Anh

####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고승오 김경화 김태영 박고은 박나리 박시하  
이효진 한성희

###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강명희 강산희 고재경 김유나 김태원 김해미 김해미  
김효미 박지혜 서민지 선정희 이보선 정희진

### 언론학석사

**언론홍보영상학과** 김다래 김빛나리 박유경 유승현 이자원  
이현정 임성은 임지은 장유진 조승연 함유선 LIU DI Nguyen  
Thi Kim Chi

### 아동학석사

**아동학과** 김영신 김형연 류정민 박희정 손한결 임성락 정기현  
정유나 정혜민 최윤경 흥수연 HUANG LIANJIN

### 북한학석사

**북한학과** 김다애 임수경 정서윤 최지선

### 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과** 송소연 전현선 LIN JING  
**영재교육** 김현정 이지현 홍세정

### 언어병리학석사

**언어병리학과** 강은혜 고혜정 김라엘 김새희 김선영 김성희  
김은정 김지원 박영선 박예지 박원정 박은영 박찬미 이미희  
이수은 장현아 정민경 정한글 조경은 한보연 한승희  
**언어병리학** 이희용 정구순

### 법학석사

**법학과** 김재진 김지윤 도혜정 백지정 이규옥 장혜원 최민정  
baasandorj buyanamgalan buya

###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김미나 김주희 김희재 송지은 신희정 이영란  
JIN XINGYAN THIDA TUN YANG RUILIN

### 음악치료학석사

**음악치료학과** 김윤미 김지수 박고은 박수경 박윤지 오세은  
조수진 한은영

### 이학석사

**통계학과** 김민정 오하린 유선후 이윤지 이혜련 최유선 허민지  
**화학·나노과학과** 구태하 김이슬 문지현 서명주 오나은 조선정  
조한나 허미정 CHENG HUA HOANG HONG HOA JIA YUANXUE  
**생명과학과** 유화영 이은경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송영선 양혜수 이서연 이유림 임지예  
**의과학과** 고서현 김보경 김소연 박민화 신슬기 지윤서  
**뇌·인지과학과** 김보리 이보라  
**의학과** 조문정  
**에코크리에이티브** 김예진 김준영 이현나

### 약학석사

**생명·약학부** 김정신

**약학과** 강민지 오선영 이미리 최수정

**제약산업학과** 고수경 박소윤 박지혜 양혜리 이민주

### 과학교육학석사

**과학교육학과** 문성진 정진양

### 보건학석사

**보건관리학과** 이여울 전서희

**의과학과** 백선정

### 간호학석사

**간호과학과** 김규린 김보은 김정은 김지은 신윤정 임수영  
정선옥 조현미 황은미

### 의학석사

**의학과** 이신아 정민경 홍소현

###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JIN ZHANYING

**전자공학과** 전언지 최한별 함성원 XIAO YING

**환경공학과** 김효영 오해성 이윤영

**식품공학과** 김수언 김효진 문지혜 신보람 하충홍 홍성이

### 건축학석사

**건축학과** 신동희 이재영 최시인

### 디지털미디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부** 김서연 이람 이주현 최호정

### 음악학석사

**음악학부** 박지은 오세린 오지연 이자호 전진희

### 음악석사

**음악학부** 강현경 고은빈 김미경 김민경 김시현 김아영  
김주경 김지은 김한나 문희원 민지숙 민지애 박성숙 박소민  
박수연 박수영 박애란 박은혜 박정화 변지현 설윤경 손지민  
송가은 송여진 송유리 송현지 신나래 신민경 심성은 윤정현  
이인경 임영신 장지수 정다운 정민정 주고은 주지영 최연정  
한예슬 함지현 황선미 황은혜 황인정 황지영 Jin Xiang Lan

### 조형예술석사

**조형예술학부** 강아영 계수진 김민경 김유란 김혜령 민지원  
박주현 박지아 이준아 임세연 조은비

###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부** 김정민 남숙희 노아름 노혜옥 서지연 신지원  
이정민 이지윤 YUN NAN

### 의류학석사

**의류학과** 김지민 김혜진 이효선 한유정

###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김효진

## 무용석사

무용학과 김문주 김연희 남지연 윤소원 장근영 채수정 하혜정

## 체육학석사

체육과학과 마성희 손승희

## 지역학석사

지역연구 임동연

## 국제대학원(28명)

### 국제학석사

국제통상 오준희

국제경영 이송현 MALIN JUSTINE JACQUELINE GINETTE

RAHMAT WAN NUR AMIRA BINTI Vidotto, Laura

개발협력 김지인 안지용 이아랑 임설

국제관계 이새라 DEMIRER,Sare SEN, Sochenda

## 한국학석사

한국문화 강다영 김은정 송윤원 전홍미 CHANG, YA-HAN

한국어교육 경윤재 고기영 박수영 배하 송지나 유지연 이규림

이연정 정시원 Kocabas, Derya Phengsomboon, Chanamas

## 통역번역대학원(30명)

### 통역학석사

한영통역 권세라 김미현 채성원

한불통역 강미재 민수아 이은정 임정민

한중통역 길경아 박지혜 이주아 전소윤 BOWON LEE

LIZHENG YUN PIAO XIYAN REN HONGLIAN

한일통역 권정화 김미정 김은희 와다 코토하 유진 이민경

이현욱 조아라 IIDA RISA

### 번역학석사

한불번역 배유선

한중번역 까오짠 진상희

한일번역 고정은 정혜원 KOBAYASHI MIYUKI

## 사회복지전문대학원(3명)

###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명소연 이지선 Byambaakhuu Batzolboo

## 경영전문대학원(29명)

### 경영학석사

경영학 강은경 김규리 김수진 김은영 박미람 안효정 엄지영

유성연 이정은 이현주 장유리 조주현 최승민 흥현진 흥희정

재무 김보경 이선향

마케팅 경수진 정설아 정의선

인사조직전략 박애리 배연주 이진아

경영과학 최선경

금융MBA 조영신

의료경영MBA 안영주 오명희 이형숙 최규리

## 교육대학원(184명)

### 교육학석사

국어교육 강현지 권미경 김선영 김진영 김초록 양수아 엄인영  
임빛나 장혜진 장희수 조민진 조윤영 한지영

수학교육 고경우 김은지 엄효숙 이현승 정미라 정현 최예진  
허윤선 황세나

역사교육 김고운 오은진 이은정

지리교육 이연주

일반사회교육 배자연 백연화

물리교육 강정은 강지선 경희경 김윤숙 손서진

화학교육 김세림 김혜정 손아영 유옥희 이지현 전영 최현경

생물교육 김지령 나지원 신성미 오유나 임미영 장다예 채상아

음악교육 공현주 김다은 김민정 김세화 김혜림 박에스더  
송민영 안신혜 오찬미 윤다예 이영인 이율희 이정은 임수현  
장한나 정지연 하남영 한보람 홍문영

미술교육 강다원 공희재 김유나 김재인 김하늬 도성제 민인경  
변정은 성지혜 원희재 윤경선 이송현 이지연 이지원 장희라  
정조아 조은영 최혜현 한시라

체육교육 김나영 김민정 김예나 김주희 박수진 유채란 이세리  
이현아 임현정

도덕·윤리교육 송다희 윤정언

영어교육 강은정 고현영 김지현 김채정 송수연 양은영 유한솔  
이승희 장영란 최혜경

독일어교육 이수현

불어교육 서혜원 지선영

중국어교육 고에스더 권석영 김시내 노혜원 배은영 전미혜

환경교육 김현진 조혜경

유아교육 송미연 송민영 주지현 천승주

특수교육 염지혜

교육행정 강유경 박미영 이명옥 이소영

교육과정 문효선 박진화

상담심리 김나윤 김정연 김지혜 박수현 박주형 배하늘 손조영  
엄연주 연희진 유정아 이은혜 이정현 임승연 장은영 정희원

교육공학·HRD 강민정 고유리 고은지 백가영 신윤미 신지윤  
이명화 이유정 조경진

교육공학 고은혜 류다현 이미나 최현경

한국어교육 강유선 명희원 유병희 이선영 임소연 임현영  
전지은 조은 진보영 최윤정

음악치료교육 김경민 김하늬 박예슬 서한나 양지혜 오소영  
오지은 윤하희 이도희 이송이 이예빛나 정해선 최재은 한수진  
황연희 황윤경 황지은

미술치료교육 유경옥

## 디자인대학원(44명)

### 디자인학석사

패션디자인 공현아 곽연화 권다운 김보희 박지현 정혜인  
최지원

섬유디자인 조연경 한임경

도자디자인 오민자 오유미 정은주 황혜경

광고·브랜드디자인 김하나 박성빈 변정아 신영화 최고운 최은지

실내디자인 도순영 채혜진

User Experience디자인 김진영 이은경 인선아 최성윤 현진희

디자인매니지먼트 김지현 나상연 박건애 박서경 박소영

박정명 박희중 이서율 이유경 이형경 이해림 이해원 임보리  
정소라 정소영 흥현주  
**서비스디자인** 박현성 이선영

### 사회복지대학원(12명)

####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 김선미 박단비 심혜정 양상민 오수경 이보람  
이수진 이승원 정수미 주영하 한경숙 허지

### 신학대학원(15명)

#### 신학석사

**신학** 김소운 김신애 김은경 김창숙 노재인 박소영  
박희순 오은진 이영분 이영순 조에스더 최영신 흥경 Zuo Yurong

### 정책과학대학원(20명)

#### 정책학석사

**공공정책학** 서우미 유지민 윤순옥 이성임 이유정 정영숙 최지연

#### 경제학석사

**공공정책학** 이슬기 최윤선

#### 언론학석사

**언론홍보학** 김귀옥 김은송 유진솔 임소연

#### 기록관리학석사

**기록관리학** 권미정 권정애 김현정 여성보 유은혜 이지은 이현영

### 공연예술대학원(26명)

#### 음악학석사

**음악공학** 김소연 김애리사 이찬이 장은비 최한나 흥진경  
**피아노교수학** 고은영 김선란 김수인 김은아 박윤선 배지혜  
성혜신 이슬기 이지수 이지영 전혜민 최윤아 허은정  
**음악예술경영** 김보민 김원희 김지윤 황경민

#### 무용예술석사

**무용공연지도** 김혜진 정승연 최정윤

### 임상보건과학대학원(38명)

#### 약학석사

**임상약학** 강성인 금민정 김이람 김윤경 문수연 박선영 박은하  
손희윤 송수진 윤현애 이유림 이윤선 이정신 이한나 정선미  
정연화 조은정 최재희 최효진

#### 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 민소진 사지선 송미림 윤자영 이선경 이해연  
이현정 장혜민 정기연 주진희 한민지

#### 간호학석사

**임상간호학** 김민정 김성자 김수정 박현정 이정영 정근배  
최은희 황정아

### 임상치의학대학원(9명)

#### 치의학석사

**임플란트치의학** LANDAYAN MARIAERIKA ANDAYA  
TATAD JACQUELINE CZAR IBE

#### 치의학석사

**임상교정치의학** 명지윤 박은경 송은지 이윤심 진상미

#### 치의학석사

**근관치료수복학** 강승현

#### 구강보건학석사

**치위생학** 이해림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24명)

#### TESOL석사

**TESOL** 김재신 남윤애 박지연 방윤정 서지유 신인아 안선미  
안혜림 이인희 최지원 허예원

#### 국제중국어교육학석사

**TeCSOL** 이현정

#### 한국어교육학석사

**TKSOL** 강혜신 고화정 김미영 김은영 김현애 배지연 백현애  
성자은 송영숙 이효경 정예은 진은선

###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대학원(111명)

##### 문화박사

**국어국문학과** 안상원 정경민  
**중어중문학과** 김선경  
**기독교학과** 박은정 송진순

##### 사학과 이해영

**미술사학과** 김지혜

**여성학과** 김주희 김지영 백경흔

**교육학과** 김경애 류주희 정이나

**유아교육학과** 김보영 김혜수 남옥선 서예석 장현진

**초등교육학과** 김한나

**영어교육학과** 김성희 김주연 성민선 양정임 오혜진

**사회과교육학과** LI YIN HE

수학교육학과 강미선 정연숙 최성이  
디지털미디어학부 김혜빈

###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박선옥

### 문화정보학박사

문화정보학과 최윤경

### 사회학박사

사회학과 김은정

###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김민경 김성원 문정화 신혜정 안은미 정해린  
Keo Chanvuthy Myadagmaa Chultem Ochir

### 심리학박사

심리학과 김수정 김은경 김혜원 김호정 이순행

### 언어학박사

언론홍보영상학과 김은경 김해원

### 아동학박사

아동학과 김재희

### 교육공학박사

교육공학과 김주연 김진희 이소영 임현진 조은아

###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노혜영 민수진

### 교육학박사

영재교육 박은경

### 언어병리학박사

언어병리학과 조옹경

### 법학박사

법학과 김구슬

###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조남옥

### 음악치료학박사

음악치료학과 박혜영

### 이학박사

물리학과 강유리 이연의

화학·나노과학과 고영옥 김은지

생명과학과 권미정 권수정 김진오 박두리 이해승 이현정  
장지영 전유경 정지혜 정혜정

에코과학부 Olviyani Nasution

의과학과 박수현 이민아 정지선

### 약학박사

생명·약학부 박선이

약학과 길윤서

### 과학교육학박사

과학교육학과 이현옥 장지영

### 보건학박사

보건관리학과 김예순

의과학과 임도희

### 간호학박사

간호과학과 김상희 김연실 이건아 이신애 차현수 허나래  
황성우

### 의학박사

의학과 원혜성 정수연 조현혜

###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성유경 신승우

식품공학과 이나래

디지털미디어학부 이승현

### 건축학박사

건축학과 임지영

### 음악학박사

음악학부 박정숙

### 음악박사

음악학부 권새별 천지윤

### 조형예술학박사

조형예술학부 정소라

### 조형예술박사

조형예술학부 이고운

###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부 김태선 김혜정 백원선 신혜영 정유선 최원정

### 체육학박사

체육과학과 이윤숙

### 통역번역대학원(1명)

### 번역학박사

번역학 강경이



# 서울안과의원(안양) SEOUL EYE CLINIC

## 진료안내

- 시력교정클리닉
- 안내렌즈 삽입술
- 백내장/노안 클리닉
- 망막/녹내장 클리닉
- 사시/약시 클리닉
- 드림렌즈, RGP렌즈
- 소아안질환 클리닉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시30분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서울안과의원(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8-1 서울안과빌딩

[www.seouleyecenter.co.kr](http://www.seouleyecenter.co.kr)

예약 및 진료문의

**031) 452-1001**